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죄에서 생긴 녹이
죄에서 나서 죄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다.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 //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9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2월 16일 수요일(주간) 제 258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주위의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다.

직접 구매하는 방식에서 온라인 구매로 구매패턴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세계 기업의 네트워크화로 바이어들은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 검색을 통한 상품주문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교육면에서는 원격강의가 가능해져 인터넷 교육이 물을 갖춰가고 있다.

종교계는 아직은 큰 변화의 물결은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사찰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규모 사찰들도 속속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가상공간에서의 포교활동에 열띤 경쟁을 보이고 있다. 교리정보나 신행생활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공유하는 속도가 현격히 빨라지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신행생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스님들이나 재가법사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해 설법하고 상담하는 사이버 포교가 활발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연히 네티즌 불자들의 외면으로 앞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사찰 역시 마찬가지다. 인터넷을 이용한 불교 커뮤니티를 형성해내지 못하면 머지 않은 장래에 젊은 신도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괜찮았는데…

고정관념 버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괜찮았는데…' 혹은 '신도 또는 회원을 뺏긴다'는 식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피력하기도 한다. 한국불교는 근대화에 실패함으로써 서구종교와의 경쟁에서 크게 뒤쳐졌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또 다시 눈앞으로 성큼 다가선 커다란 변화의 물결앞에 사찰이, 종단이, 그리고 불자 개개인이 미래불교의 모습을 암담하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변화된 사회환경에 하루빨리 적응하려는 교계의 의지다.

유권준('인터넷과 불교문화' 홈페이지 운영)

○이 연중기획은 독자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yry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인권위 살려야 한다"

재정난 심각 활동 저조…불자들도 관심밖

'불교의 근본사상인 대자대비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인권침해, 생명경시 풍조를 시정하여 건전한 민주사회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지난 90년 창립된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스님·한상범)가 유명무실의 상태에 처해 있다.

불교인권위는 그동안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나눔의집 건립, 불교인권상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었다. 그러나 96년에 이어 지난해 8월 공동대표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구속됨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불교계 밖의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간사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교인권위 전체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간사의 활동비도 몇 달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사회활동으로 인권운동을 꼽으면서도 교계의 인권운동은 매우 저조했다. 불교인권위에 이어 3년 전 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인권위원회가 구성됐으나, 간판만 내걸었을 뿐이다. 지난해 8백여 명의 상담자가 찾는 등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불교인권위가 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불자들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에 있지만, 몇몇 명망가 중심의 단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회원, 후원인 등 저변에 불교인권운동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 불교인권위에는 양심수후원회 사형제폐지운동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나 조직표상의 기구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발생해서 대처하는 것도 주요한 사업이지만, 함께 인권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과 후원인들을 확보하는 것도 불교인권운동의 저변확대라는 점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체간의 단절된 활동 양상도 불교인권운동을 침체에 빠지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면, 북한등표폼기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사안을 한 단체에서 처리하기보다는 기존의 단체와 협력한다면 단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상범 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인권정보센터 대표)는 "석가모니부처님이 오늘 이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사람을 귀히 여기고 아끼는 자비보살행일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 '2000년 총선 불교연대'는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닮은 정치, 자진 참회'라는 휘호를 단 목어(木魚)를 조계사 대웅전에 부착하고 불자들로부터 낙천 낙선운동 지지 서명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선학원 17일 이사회

행자교육·수계식 논의

선학원(이사장)은 17일경 이사회를 열어 제1기 행자교육원 및 사미 사미니 합동수계식에 따른 습의사와 교수사의 임명 등 행자교육원 운영, 사미·사미니 수계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선학원 이에 앞서 지난 1일 기관지에 행자교육원 개원을 공고하고 입방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행자교육원 입방자는 10여명이 될 것으로 선학원은 보고 있다.

선학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자교육은 다음 달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우이동 보광사에서 열리며, 13일 합동수계식을 봉행한다.

정성운 기자

낙천운동 종교계 확산

교계 21개 단체 '총선 불교연대' 결성

불교단체들과 기독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힘에 따라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 종교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본지 257호 19면 참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2000년총선 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청화·박광서)는 9일 조계종포교원에서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낙천, 낙선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총선불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차 공천반대자 67명 가운데 50명 이상이 종교인이고 그중 17명이 불자"라면서 "정치지도자들에게 참회와 자정의 기회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낙천·낙선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선불교연대는 선거법의 미비한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뒤 앞으로 공천반대인사의 자진참회 및 불출마 촉구, '공천 엘로카드' 옐서 보내기 운동, 선거법 재개정 촉구운동 등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등 22개단체가 참여한 '새로운 정치와 바른 선거를 위한 기독교총선연대'(상임공동대표 오충일)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연대를 모색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보물'

문화재청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12일 충북 괴산군 청안면 민가 안에 있는 보안사 삼층석탑(사진)을 보물지정예고했다. 이 탑은 고려시대 것으로 단층인 기단 위에 3층 탑신부와 노출된 반석으로 구성된 화강암 재질의 석탑이다.

이 탑의 기단은 네모난 모양에 4개의 돌로 구성돼 있고, 탑신부는 탑신석과 옥개석이 각각 1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2·3층 탑신은 1층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조각 수법이 고려 중기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석탑에서 특이한 것은 1층 탑신에 조성된 감실인데, 이와 같은 예는 강원도 경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국보 48호)과 경북 의성 빙산사지 오층석탑(보물 327호)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은 학술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번에 보물로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종헌종법따라 사면"

조계종 혜암종정 유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사면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혜암스님은 8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있은 신년하례법회 유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종헌종법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사면 문제도 종헌종법에 의지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처님법이 있는만큼 하루속히 대중들과 논의해서 종단화합 방안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6면〉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포교원장 정련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하례법회 후 본사주지들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종회의원이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한발짝 물러서서 집계자의 입장에서 사면문제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 종정예하의 유시의 말씀과 같이 종헌종법에 따라서 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또 "지금과 같이 집계자가 많으면 종단의 안정은 요원하다"며 "분규의 불씨가 앞에 안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원칙에 입각한 대폭적인 사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평화통일 기원 1000일 정진 12면
감은사지 서탑 기울다 19면

현대불교신문 (94.10 ~ 99.12) CD 나왔습니다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밀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 (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 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사미니 기본교육 활성화

동화사 기초선원 3월 개원…안성 용응사 강원 8월 열어

사미니 기본교육이 활성화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오는 3월 사미니 기초선원을 첫 개원하고, 사미니강원을 신설한다. 이와함께 기존 사미니강원의 증설을 통해 입학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그동안 교육기관 미비로 교육기회를 얻지못한 모든 사미니가 기본의무교육과정에서 수학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미니 기본교육은 전체 강원 18곳중 5곳밖에 안되고 신입생 모집정원도 190명에 불과해 매년 50여명이 탈락, 의무교육 시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1월 26일 전국 강원 학장회의에서 2000년도 사미니 탈락생 구제방안이 논의됐지만 수용대책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3월 6일 봄교과안거와 함께 대구 동화사 양진암과 부도암에서 개원하는 사미니 기초선원은 각 기수당 10명씩 1백여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교육원은 최근 전국비구니회에 사미니 기초선원 운영에 필요한 비구니 교선사및 선감의 위촉을 의뢰했다.

또 안성 용응사(주지 응선)에 사미니강원이 신설된다. 빠르면 올 8월에 개원할 용응사강원은 30여명의 첫 신입생을 모집한다. 용응사는 이를 위해 이미 총건평 250평 3층규모의 강당건물을 완공했으며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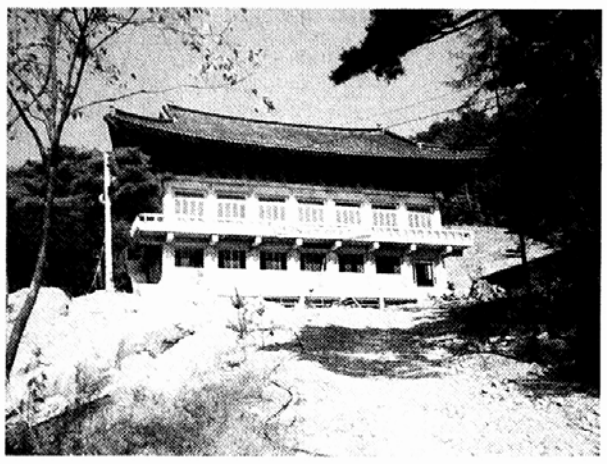
용응사 주지 응선스님은 "컴퓨터와 영어등 외전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학과를 편성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정원을 늘려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며 "사미니 교육에 뜻을 두고 있는 역량있는 강사스님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밝혔다. 0334) 674~3578

운문 청암 봉녕 동학사와 삼선승가대학도 올해 대대적인 교육시설 확충을 통해 내년부터 신입생을 대폭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사미니교육기관 신설과 증설은 물론 운영부분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미니 강원의 입학시기및 사정관리에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앞으로 사미니 기본교육기관이 적정한 교육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가대학령의 개정으로 학인 정원기준이 10명으로 낮춰지면서 동화사와 은해사가 올해 3월부터 강원을 개설해 사미강원도 2곳이 늘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올해 8월 사미니강원을 개원할 예정인 안성 용응사. 현재 강원 건립공사가 한창이다.

"태고종 5년안에 '선교육 후득도' 정착"

종립학교 운영계획안 마련

올 종무행정의 3대 지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설정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5년안에 '선(先) 교육 후(後) 득도' 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아래 종립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승적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최근 종립학교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행자교육과 승려및 교임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등 교육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개혁불사에 착수했다.

태고종은 동방불교대와 선암사 승가대 등 종립교육기관의 운영과 각종 연수교육 등 종단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를 교무부로 일원화함에 따라 동방불교대와 선암사승가대 운영을 직접 관장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로 교무부 사무실을 동방대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동방불교대는 학교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고 교계 언론에 대대적으로 신입생 모집광고를 내는 등 학교홍보와 인재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02)763-0229. 선암사 승가대학 역시 지난해까지 사미과만을 운영해 왔던 교육프로그램을 개편, 사집과와 사교과를 신설하는 등 전통강원의 체계를 갖추고 학인모집에 들어갔다(0661)754-5247.

교육개혁불사를 주관하고 있는 교무부장 백운스님은 "그동안 조계종과의 사찰분규에 시달리느라 교육불사에 등한시 해왔던게 사실"이라며 "동방불교대와 선암사 승가대를 21세기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직자를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종립 교육기관이 되도록 운영을 과감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조계종, 5월15일까지 승려분한신고 실시

조계종 승려 분한신고가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은 8일 정기분한신고 실시를 공고했다.

이번 승려 분한신고는 1952년 이후 여섯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99년 사미(니)계 수지자를 제외한 조계종 소속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선학원 소속 승려의 분한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조계종은 분한신고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를 실시하며, 결격 사유가 없는 비구(니)에게 새 승려증을 발급한다.

조계종은 4~10년 주기로 분한신고를 실시해 승려의 수, 승적변동사항 등을 파악, 종무행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정성운 기자

교구본사 종무지도감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21일부터 5일동안 전국 24개 교구본사를 대상으로 종무행정지도 및 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무지도 및 감사는 포교·사회 활동 등을 통한 불교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와의 결속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지역에서의 사찰의 활동력 및 영향력 점검 △중앙종무기관이 시달한 종무지침 집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이번 종무지도 및 감사는 98년, 99년 종단사태로 실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운 기자

도후스님 사장직대 불교방송 이사회서 임명

불교방송은 10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38차 이사회'를 개최해 12일자로 정년을 맞은 성낙승사장을 퇴임시키고 차기 사장 선임시까지 재단이사장 도후스님을 직무대행에 임명키로 결의했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의는 사장임기가 4년이지만 정관상 사장 연령제한이 만 65세로 돼 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김주일 기자

"불교대학으로 오세요"

전국 50여 대학 신입생모집

전국 50여개 불교교양대학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일제히 개강한다.

올해는 특히 불교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전문교육기관과 과정이 신설되거나 설치된 점이 새롭다. 조계사불교대학, 전북불교대학은 경전연구 과정과 보현학림을, 무불선대학원 만대교육대학원 호남불교대학 광주불교대학은 전문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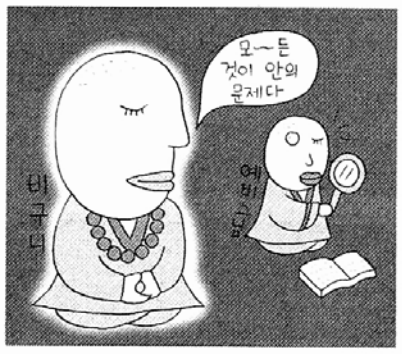
서울 동산불교대학,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을 비롯한 각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법사과 일반도에서 벗어나 자비심리상담과 포교봉사과 불교미술과 범패과 불교문화재과등의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여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교육시간이 맞지않는 직장인과 타지방 학생을 위해 테이프로 교육하는 통신과정과 주부반 운영도 늘고 있는 추세다.

김원우 기자

주요 불교대학 개강일정

지역	사 찰	개강일	과 정	전 화
서울	조계사불교대학	3월 6일	2년과정	02-720-1390
	동산불교대학	2월 12일	2년과정	02-732-1206
	무불선대학원	3월 6일	2년과정	02-541-0002
	광운불교대학	2월 25일	1년과정	02-389-8966
	만대교학대학원	3월 5일	2년과정	02-931-6075
	동방불교대학	3월 2일	2년과정	02-763-0229
	금강불교대학	3월 2일	1년 2년	02-576-6401
	대원불교대학	3월 2일	2년과정	02-757-1613
	한국불교통신대학	3월 2일	1년과정	02-962-1666
	한국불교예술대학	3월 2일	1년과정	02-969-2410
	한국불교법사대학	2월 25일	1년 2년	02-720-1836
	삼화불교대학	3월 2일	2년 4년	02-511-2026
	승가대불전연구원	3월6일	6개월	02-929-9991
	봉은사불교대학	3월 8일	5개월	02-516-5652
	능인선원불교대학	3월 3일	4개월	02-577-5800
	화계사불교대학	3월 15일	2년과정	02-902-2663
	삼보사불교대학	3월 8일	4개월	02-352-6404
	KBUF아카데미	3월 9일	1년과정	02-732-0239
	만해대학	3월 9일	1년과정	02-739-4448
	정토불교대학	3월 7일	4개월	02-587-8993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	3월 10일	1년 3개월	051-647-6556
	불교교육대학	3월 2일	1년과정	051-818-8659
	금정불교대학	3월 13일	4개월	051-866-7277
광주	불교문화대학	3월 중순	1년 2년	062-228-9098
	호남불교대학	3월 20일	1년 2년	062-222-0819
	광주불교대학	3월 2일	1년 2년	062-375-7603
대구	영남불교대학	3월 13일	1년과정	053-474-8228
	경북불교대학	3월 24일	1년과정	053-792-1353
	대구불교교육원	3월 7일	1년과정	053-253-7063
	대구불교대학	3월 5일	2년과정	053-256-3725
	보현사불교대학	2월 15일	3개월	053-254-6966
대전	보현불교대학	3월 7일	2년과정	042-624-6555
울산	울산불교교육원	3월 7일	4개월	052-266-3318
	정토사불교대학	3월 2일	1년과정	052-258-9944
경기	경기불교대학	3월 3일	1년과정	0331-255-2692
	봉선사불교대학	3월 8일	10개월	0346-527-5974
강원	강원불교대학	3월 18일	1년과정	0361-252-5040
전남	목포불교대학	3월 20일	2년과정	0631-279-0577
	해남불교대학	3월 4일	1년과정	0634-534-3355
전북	전북불교대학	3월 5일	1년과정	0652-226-7878
	이리불교대학	3월 9일	2년과정	0653-854-1578
	남원불교대학	3월 6일	1년과정	0671-632-6936
충북 경북	충북불교대학	3월 14일	1년과정	0431-263-2329
	불국사교육원	4월 1일	3개월	0561-743-1106
	포항불교대학	3월 9일	1년과정	0562-247-4688

현 대 만 평 박구원



수행

종편위, 군·언론 모니터 강화

올 사업계획 발표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현진)는 올해 군분야관련 사례 대응과, 교육계와, 언론분야 모니터 강화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백서발간 △영역별 전문화 △모범사례 확대 △유관부처와 단체연대 강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의 분기별 보고를 정례화하고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하는등 협의틀을 구성함은 물론 해외·타종교간 연대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손상훈 사무국장은 "종편위 사업의 대중화를 위해 토론회와 수련회도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29일 본사포교국장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9일 1시30분 회의실에서 포교원과 본말사간 포교방향 논의와 포교지도사업에 대한 공조체제구축을 위한 제1회 본사포교국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포교원 사업계획 △본사포교활동 보고 △신도교육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양천구 '구민체육센터 운영' 입장차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권을 둘러싸고 조계종과 양천구청측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스님과 조계종 복지재단 이용권 사무국장, 양천구민체육센터 관계자 등 5명은 10일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조계종이 계속 운영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부장은 "조계종 총무원장 명의의 진정서와 종단협의회 소속 총무원장 명의로 작성된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불교계의 입장' 문건을 전달하고 불교계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양천구청측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천구는 지난달말 2월 신설 예정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립체육시설을 일괄운영하게 돼 계약기간이 만료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반환해 줄 것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과 불교계는 "위탁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이같은 지자체의 일방적 행정조치는 종교계의 복지정책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명우 기자

世界人類平和祈願大碑 제막식

세계인류평화기원 · 자비대보살수계대법회 봉행

봉 행 취 지 문 인류역사를 돌이켜보건데 약육강식이란 생태계의 생리와도 같이 인류는 오랜옛적부터 약탈과 강점을 위한 온갖 폭력과 살육등 싸움으로 역사를 물들여 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갈등과 싸움의 태반이 씨족간의 싸움이다 부족간의 싸움 또한 민족간싸움보다도 종교간의 싸움이 지구촌 싸움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다하니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역사를 뒤로하고 벅찬 희망과 평화를 구가하는 새천년인 2천년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폭력적 역사의 잔재는 아직것 가실줄 모르고 새천년에 접어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온갖 폭력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전쟁이다, 경제전쟁이다, 심지어 정보전쟁이다등 전쟁의 궤를 달리하는 색다른 전쟁양식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제도를 표방하는 우리불교도들은 이같은 현실을 깊히 통찰하고 온인류의 지상과제인 인류평화의 성취를 위해 일심단결 굳은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 그 실천적 행동의 폭을 크게 넓히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적 불사의 일환으로 우선 세계불교승왕청이 앞장을 서서 남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말그대로 금수강산이라, 산세수려하고 굽이굽이 수려한 산허리를 휘어감아돌며 흘러내리는 맑고 맑은 금강물줄기 상류에 위치한 영취산 약사도량에 세계인류평화기원대비를 건립하고 이어 세계인류평화기원과 자비평화의 역군으로서 신심어린 대보살(마하보살) 선발을 위해 결의강한 자비대보살수계대법회를 감히 봉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불기2544(서기2000)년 월 일

대법회봉행위원회

동 참 안 내 인류평화기원불사에 교계 각종단의 큰스님께서나 각 불교단체임원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2544(서기2000)년 3월 30일(목) 정오12시
음력 2월 25일

▣ 장 소 : 대약사사(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건너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 동참금 : 일금 삼만원(30,000원) 수계첩 점심식사제공

◎ 세계인류평화기원대비석에 단체명및 대표자성명각인

◎ 세계인류평화기원대법회 임원취임

◎ 자비대보살(마하보살) 수계 신청

세계불교승왕청 최고위원 추대, 중앙위원 위촉추천과 단체등록은 세계불교승왕청사무처로 문의바라며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서류를 세계불교승왕청사무처로 보내주십시요.

문의; 세계불교승왕청사무처 사무총장 법왕자 김소부
서울 구로구구로4동732-2신협빌딩 ☎02 837-2003 011 356-3427

世界佛教僧王廳 代表겸 最高委員 世界僧王 仁旺 申判石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실무의장 서의륜 011 352-7751 세계불교승왕청신문사 발행인 김소부 011 356-3427 대중불교신문사 장동하 019 374-5846 경기불교신문사 김점열 011 325-3834 뉴부산불교저널 한상배 011 583-8247

목어

종교와 정치

선거법이 개정되고 종교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합법화되었다. 종교시민단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치에 간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조직체로서의 종교가 효율적으로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겠다는 기대와, 그것이 결국은 종교간의 갈등과 반목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불교계 쪽은 우려가 더 큰 듯하다. 이 판단에는 두 가지 코드가 같이 들어 있다.

불교는 그동안 정치사회적 권력의 주변부에 있었고, 이로 인해 받은 불공정한 대접을 매우 억울해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얼핏 겁약해 보이는 태도같지만 깊은 지혜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우리는 종교계가 호교론적 관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오히려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는 그공안 기독교의 배타적 자세로 인한 비방과 방화 등 수많은 형태의 훼불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해 불교계가 "눈에는 눈"이라는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으로 대처했다면, 우리 또한 세계의 다른 분쟁지역에서처럼 종교전쟁의 비극과 참화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종교 사이는 설득과 경고 등의 대화를 통한 비폭력의 방식 밖에 해결이 없다. 비록 그것이 멀고 험한, 그러면서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불교는 새 밀레니엄의 화두인 평화를 리드할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손쉬운 길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삼독(三毒)을 경계해야 한다. 교세 유지와 확장을 향한 탐욕과, 기독교와의 경쟁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이를 세속적 정치참여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깊이 경계해야 한다. 종교계는 결코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불교계는 더구나 이익단체임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그것은 부처님의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세속의 것은 카이저에게, 진리의 법은 부처님에게로 돌려야 한다. 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정치적 문제는 종교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보편적 합리성에 기반한 제도와 법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아직 조계종 사태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시점 아닌가.

한형조(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교TV 새 화두 '주식 감자'

주 사장 사의 표명…투자자 유치 난항

임대료 못내 사무실 폐쇄 '설상가상'



◇불교TV는 8일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10층 사무실을 폐쇄당하고 지하스튜디오로 옮겼다.

불교TV 주양자사장은 취임한 지 1달도 안돼 주식 감자(減資)를 하지 않으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그 시기가 자민련 전국구 국회의원 승계와 맞물려 정치적 술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불교TV가 8일 6억5천만원의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금오전기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10층 사무실을 폐쇄하고 1층과 지하스튜디오로 옮겨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 21일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주식감자의 의견이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됐던 1월29일 불교TV 이사회에서 주사장은 이수덕부사장, 윤소년전무와 함께 사직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주사장의 사장 영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윤소년전무의 사표가 8일 수리됨에 따라 주사장도 불교TV에서 발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는 사장직을 물러나 최근 정치계로 입문한 허문도사장의 전례에 비춰 대두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사장이 10일 현재까지 뚜렷한 행보를 밝히고 있지 않아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한 측근에 따르면 "주사장은 국회의원 승계가 발표되자 비서를 시켜 불교TV가 규제를 받는 종합유선방송법과 국회의원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법규상 사장 겸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등으로 미뤄 봐서는 완전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해 만일 21일 이사회에서 주식 감자 등 주사장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사장직을 계속 수행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인 주식 감자에 대해서는 현재 주사장과 대주주인 통도사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장은 213억원의 불교TV 자산을 최소한 50% 정도로 주식 감자할 경우 재정지원을 해줄 투자자가 대주주로서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자 물색이 쉽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주식 감자를 이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도사주지 신허스님은 만약 주식 감자를 해 주었는데도 적당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주주의 권한만 이양한 것이 되니 확실한 투자자가 나타나 일부만이라도 부채를 해결한다면 언제든지 주식 감자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21일 이사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수덕 불교TV 부사장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주사장은 업무보고와 결재를 하는 등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불교TV를 살리는데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최근 자신에게 밝힌 것으로 미뤄 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만 이뤄진다면 사장직은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주식 감자가 주양자사장의 사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불교TV의 어려운 사정을 파악한 주사장이 국회의원이 된 뒤 생각이 달라져 주식감자를 공식적인 명분으로 내걸고 사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만일 주사장이 또다시 사장직을 물러난다면 허문도사장에 이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한번 불교TV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돼 그냥 구경만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분노의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혜암종정 사면유시 '의미'

사면논의 본격화

3월종회 사면동의안 처리 관심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정대스님 취임 이후 거론됐던 사면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부처님 법이 있는만큼 하루속히 대중들과 논의해서 종단 화합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사면을 실시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혜암스님은 정대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부장급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교구본사주지들의 신년하례를 받은 후 발표한 유시를 통해 사면 실시에 따른 적정선을 제시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중들과 논의해서 하루속히" "종헌종법에 의지해서", 사면의 목적을 "종단 화합"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종헌종법에 의지한다는 것을 현행 종헌상 멸빈자의 사면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면의 폭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뒷일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종헌을 개정해 사면을 실시하는 것이 결코 종헌종법을 뛰어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혜암 종정의 유시에 따라 사면 논의는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부는 사면 실시에 따른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미 정대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사면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사면 실시를 설득했으며, 이제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종정스님에 대한 신년하례 후 본사주지들의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종정예하의 유시의 말씀과 같이 종헌종법에 따라서 사면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회의원이나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께서도 한발짝 물러서 징계자의 입장에 서서 사면문제에 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사면 요청을 중앙종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조계종단 최대의 이슈가 되었다. 중앙종회는 3월 중순 열릴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립문자라는 말에 속지 마라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❻선과 언어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일반적으로 선(禪)이라 하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심전심'의 고사가 대변하듯 언어나 문자로는 안 된다고 한다. 석가세존이 꽃을 든 사연을 가섭만이 알아채고 미소짓듯, 진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은 선어록을 우리말로 해석한다든지 또는 화두를 풀이하면 큰 일 나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 당시 선풍을 일으켰던 당사자들도 그랬을까? 아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보자.

첫째, '선의 체험'과 그것을 체험하게 된 상황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선어록은 그런 이야기모음집이다. 그런데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모음집인 선어록과 '선의 체험'을 혼동한다. 11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 선사들의 이야기모음집 〈경덕전등록〉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사들이 마음으로 전한 것을 어찌 책으로 만드느냐고 반대했다. 책 만드는 데에 참석한 장락정앙(長樂鄭昂)은 이 비난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아무리 전함 없이 전했다 해도, 전해주는 상황이나 연유를 몰라서야 된단 말인가?" 선사들이 깨닫게 된 상황과 전후 사연은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연을 모은 것이 선어록이고, 그런 선어록 모음집이 〈경덕전등록〉이다. 깨닫기까지의 수행과, 깨달은 순간들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 선어록이다.

둘째, 중국의 조사들은 '선의 체험'을 일상 생활 속에서 드러내 보임은 물론, 언어로 끝까지 표현하려고 애썼다. 물론 선사들은 '선의 체험'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그 체험에 딱 들어맞게 표현하려고 갖은 애를 썼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설픈 말로 어물거리면 몽둥이질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낙숫물 떨어지는 소리에 깨쳤다는 유명한 중국 경청선원(鏡淸禪院)의 도부(864~937)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번뇌로부터 벗어나기는 그래도 쉽지만, 번뇌에서 벗어난 체험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말로 표현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다. 표현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고백하는 말이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온 대화들이 훗날 〈벽암록〉에 기록된 것이다. 허튼 말이 있을 수 없다. 제대로 된 선사들은 자신의 체험을 고스란히 언어나 말로 표현해 보려고 한다. 시인이 체험만 하고 시를 쓰지 않으면 그게 어디 시인인가?

물론 선종에서 말을 제한적으로 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도 실은 도를 설명하는 논법일 뿐이다. 약산(藥山)에 살던 유엄(惟儼;751~834)스님은 이런 말을 했다. "말을 아주 끊을 수는 없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체험은 여하튼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그 표현된 것에 의해 그 당사자의 체험이 제대로 되었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깨쳤다고 떠들어대는 미친놈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불립문자'라는 방공호 속으로 숨어서도 안 된다.

셋째, 깨달음이란 문자에 의지하지 않으며, 마음의 법은 스스로 깨치는 것이므로 남에 의지해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 너무도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깨닫는 일이야 주체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유발하는 계기는 있어야 한다. 선어록은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선어록을 보다 깨친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불경을 보다 깨친 사람은 더 많다. 삼아계신 석가모니를 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그 깨친 이들의 말씀을 적은 책을 보지 않고 어떻게 깨칠 수 있을까? 책속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책을 보면서 자신을 관조하다가 깨치는 것이다. 경전도 그렇고 선어록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도책이다. 지도책은 해독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선문답도 해독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

끝으로, 현재의 수행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의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사하느냐는 것이다. 즉, 육조혜능을 할아버지로 삼아 수행하는 선승이라면, 조계의 선풍을 담고 있는 선어록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이정표로 수행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정표가 바로 선어록이다.

'화두'를 왜 '공안(公案)'이라고 불렀겠는가? '공안'이란 말은 원래 법률 용어로서, 이른바 관공서에 비치된 판례 조문이다. 과거의 판례를 참조하여 지금의 문제를 푸는 데에 참조하는 것이 판례집이다. 선 수행의 판례집이 바로 선어록이다. 1,800 공안도 과거의 믿을 만한 선사들이 몸소 실천한 수행과 깨달음의 선례를 모아 놓은 판례집이다. 판례집은 해독되어야 제 몫을 한다. '불립문자'에 속아서는 안 된다. 강을 건너기까지는 뗏목에 의지해야 하듯, 지혜가 담긴 문자의 힘을 빌어야 한다.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0학년도

한국불교 통신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일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 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에 나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운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 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허)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대종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종현대선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대법사 취임,
1999. 10.30 제7대 학장 한정섭이사장 취임
제6대 대학원장 석성륜스님 취임

1. 모집학과
(1)대 학 :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2)대학원 : 경학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1)불교포교학과는 고졸이상 학력소지자
(2)승가학과는 출가입산 회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 자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2)이력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반명함판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1)중앙교육원 02)969-2410 (FAX) 02-969-4981 (2)연수원(상락향 수도원) 0356)584-0657
(3)부산교육원 051-703-7237 (4)대구교육원 053-743-1178 (5)구미교육원 0546-455-1068
(6)충북교육원 0431-223-9026 (7)제천교육원(0443-446-3023 (8)안산교육원 0345-483-2667
(9)포천교육원 0357-532-4565 (10)진해교육원 0553-546-4186
(11)하와이교육원 808-943-8015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전
(1) 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2) 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3) 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을 품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02-962-1666, 969-2410

한국불예술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에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하고자 제2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과정 : 기초과정
2.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3. 교육기간 : 각 과정 3개월 기본(1년 과정) - 개강 3월 2일
(매주 수, 목, 금 또는 토 오후 2시~4시: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 교육동참금 : 매월 10만원
5.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자격증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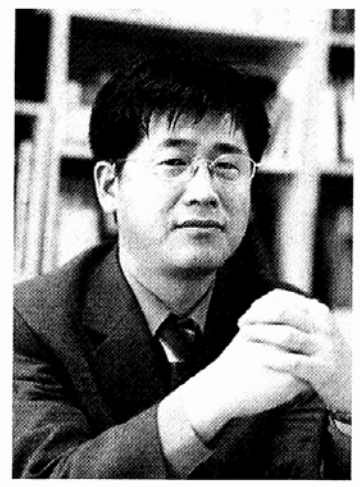
모집부분	과 목	강 사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중등과정	바라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다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고등과정	사다라니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각종의식 강의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대학과정	삼귀의작법무 영산제 및 운심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가람도 현대인 정서 맞게 지어야"

새 천년을 뛰는 불자 〈7〉

건축사 김 정 관

부산시청·13개학교 설계
수행·법회·문화활동 수용
다용도 사찰 만들기 '화두'



사찰이 도심 속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불교가 생활화되고 현대화되었다는 반증이다. 그에 비해 사찰 건축은 옛 모습을 고집하며 실용성이나 형태미에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찰 건축의 현대화가 절실합니다. 자유롭고 성스러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공간인 사찰 건축이 오히려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재료는 콘크리트로 변해 가는데 기와집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감리 전문회사인 (주)렙타의 대표 김정관(41) 소장이 건축 전문가로서 토로하는 안타까움이다. 일반 건축에서 김 소장은 인정받는 실력가다. 부산시청 설계에 팀장으로 참여했고, 진주 상업고등학교·남창 고등학교·충주 성모학교 등 13개 학교를 설계한 것을 비롯 신라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맹아학교인 충주 성모학교는 빛만을 감지하는 특수 설계로 '맹아들의 천국'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건축 분야에는 아직 속시원한 시도도 못해 본 아쉬움이 있다.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 대해 품고 있는 김 소장의 실곽한 '꿈'은 현실화 될 날만을 기다리는 씨앗과도 같다. 틈나는 대로 외국의 사찰, 교회, 성당 건축 책자를 공부하며 사찰 건축의 현대적 의미 부여에 고심하며 속에 품은 씨앗의 발아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펴는 공간으로 사찰이 거듭나야 합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 제한된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적절한 건축비용을 책정해 승가와 재가의 공동 수행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포교공간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아쉽습니다."

사찰 건축 현대화의 열쇠는 스님들이 쥐고 있다고 김 소장은 말한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 교육과정처럼 승가대학 교육과정에 건축개론 과목이 편성되길 희망한다. 좋은 건축에 대한 인식은 언젠가 포교 공간을 지을 때 형태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낸 건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사찰 건축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는 필수적이다. 비싼 건축비를 들여 기와 대웅전을 지어놓고 다른 요사채나 식당 공간은 계획없이 처리하는 현실에서 탈피, 통일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디자이너에 의해 탄생한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사찰 건축이 전문가의 설계로 성스러움, 효과적인 공간 활용, 편의 제공,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평소 소신이다.

김 소장은 얼마전 부산 관음사 요사채 설계를 맡아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신도들의 법회공간, 신행공간을 분리해 도심내의 사찰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도 했다. 또한 김 소장은 법회위주의 사찰에서 탈피, 지역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사찰을 위해 재가자 대상 건축 교육을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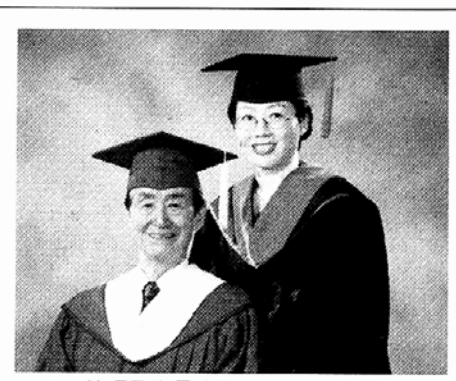
부산 관음사청년회 지도법사와 부산청년불자산악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김정관 소장은 법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포공스님·김진문씨 동대에 1억 기탁

동국대 불교종합병원건립불사에 뜻을 같이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거액의 성금을 잇따라 기탁했다. 동국대 동문인 김진문씨(신성약품 사장)이 11일 병원 건립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사진〉 이에 앞서 10일에는 서울 봉익동 대각사 포공스님이 1억원을 기탁했다. 스님은 "불교종합병원 건립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그동안 강의와 원고료 등을 받아 모아두었던 것을 가져왔다"면서 "중생구제의 으뜸이 될 병원불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15일 동국대 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시아버지 김영수씨(왼쪽)와 며느리 이성숙씨.

시아버지와 며느리 동국대서 나란히 석사모

김영수·이성숙씨 만학 향학열 화제

15일 동국대 증강당에서 거행된 동국대 졸업식에서 희수의 시아버지와 불혹의 며느리가 나란히 석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됐다.

불교대학원에서 4.38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시아버지 김영수씨(77)와 산업기술환경대학원에서 4.25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며느리 이성숙씨(40)가 그 주인공이다. 김씨는 '경허 성우의 생애와 선사상'을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며느리 이씨는 '청정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주제 논문으로 석사모를 썼다.

"자기 논문쓰기에도 바쁜 시간에 컴맹인 나를 대신해 논문 원고를 일일이 입력해 준 며느리 덕분에 석사학위를 받을수 있었다"라는 김씨는 "불교와 선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남은 여생을 회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며느리 이씨는 "아버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석사학위 받는 기쁨을 시아버지에게 돌렸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창생이 되어버린 시아버지 김씨와 며느리 이씨는 부처님 도량 동국대에서 얻은 값진 인연으로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겠다며 활짝 웃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회원 화합에 최선"

광주 운전불자회 새회장 이남식씨



광주광역시 운전자불자회는 이남식씨를 2년간 운불련을 이끌어 갈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남식씨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올해는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회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봉안해 회원가족들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무실 기금마련을 위해 운불련은 콜택시 52대를 운영하고 있다. 콜택시 운영 수익은 사무실 기금으로 쓰여지게 된다.

현재 10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광주 운불련은 이 지역 사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안내를 맡고 있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정기법회, 등산, 수련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친목과 무사고 안전을 기원하며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써의 소임을 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는 환경캠페인을 비롯해 장애자 가을 나들이,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일주문

전북불교회관서 법문



근일 부석사주지(봉황선원장)는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전북불교예술제 및 큰스님 초청 사상강연회에서 법문했다.

선정회 철야법회서 법문



성해 선학원 원장은 19일 선학원 선정회 월례 철야정진법회에서 참선 지도와 법문을 한다. (02)732-3327

'장기이식 법률' 시행 축하모임



성운 생명나눔실천회 부이사장(은평노인복지관장)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컬룸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신장협회' 등 4개 법정 장기 등록단체 대표들과 함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신륵사서 정월방생법회



지흥 조계사 주지는 20일 여주 신륵사에서 정월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에서 아침 6시 30분 출발한다.

고란사등 성지순례



성원 강화도 선원사 주지는 14일 신도들과 함께 부여 고란사, 무량사, 청양 장곡사 등에서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온겨레 손잡기 운동본부 결성



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는 1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3.1절 기념 온 겨레 손잡기 운동본부 결성식을 가졌다.

동대 불교대학원 사은회



능화 동국대 불교대학원 15기 학생회장은 14일 신라호텔 후비룸에서 제15기 졸업생 사은회 및 환송법회를 가졌다.

우리는선우 가족법회 법문



원성스님(화가)은 19일 3시30분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열리는 가족법회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삶'을 주제로 법문한다.

장학금 2천7백만원 전달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2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중·고·대학생 등 모두 26명에서 2천7백여 만원을 전달했다.

동남아 4개 불교국 방문



전두환 前 대통령은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캄보디아,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 불교국을 방문한다. 캄보디아 훈센 수상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전 대통령은 싱가폴 이광요 前 수상(선임장관), 태국 프렘 前 수상,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며, 각 나라마다 불교성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정년퇴임기념 논총 봉정식



홍윤식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장은 18일 오후 6시 서울 엠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정년퇴임기념 논총봉정식을 갖는다.

충청 불교지도자와 만찬



한화갑 민주당 지도위원은 4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수덕사 주지 법장, 선농회 총재 혜명스님 등 대전 충청권의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찬을 갖고 대화를 나눴다.

자민련 불자회 신년하례



박철언 자유민주연합 불자회장은 23일 오후 2시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강당에서 신년하례대법회를 봉행한다. 법문은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 치사는 이한동 총재, 발원문은 이상현 국회의원이 맡는다.

2000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40명 ■야간20명 ■통신40명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60명		
유아교육 (유아포교)과	2년	■통신50명 ■주간2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중국어과	2년	■주간30명 ■통신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통신40명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 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94.11 본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95.11 본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취득
96.11 본교학생 186명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0명 자격취득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후)
99.12 불교학과 95% 포교사 자격 취득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재학중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2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 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2월 25일까지
■ 문의처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모집학과

■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의예과	5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군대연기 가능
※ 졸업후 의사 자격 취득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 설

종정스님의 사면유시

조계종 종정스님의 사면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계기로 사면 문제가 좀 더 빠른 진전을 보일 듯 하다. 총무원장 스님도 누차 소신을 표명하였고, 교계 내외의 바람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선에 이르러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조속한 사면이 시행되어야 할 시점이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신중하게 원칙에 따라 사면을 실시하여, 한번의 졸속한 시행이 두고 두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사면 문제는 조계종 역사의 모든 문제들이 집적된 증차대한 일이요,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조계종 미래의 행보가 결정될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사면의 실시에 있어 우선 모든 종단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하고, 또 이미 묵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공감대는 종단의 화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대화합이라는 원칙 아래서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모든 분규의 와중에서 시행되었던 중징계에 대하여는, 그 당시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상황을 감안하여 분규의 양방이 한걸음씩 물러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인 감정의 대립으로 야기된 사태를 일단 접어둔 다음 아무리 극단적인 대립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계종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해종행위를 선별하고, 그것을 주도한 대상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해종행위에 대한 명백한 단죄와, 그 해종행위를 주도한 대상자들의 공개적인 참회가 이루어져 다시는 그런 일이 조계종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하지 않는 한, 그런 행위를 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어서는 아니된다. 승단 내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화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거꾸로 사면에의 압력으로 작용하여 사면이 시행된다면 이는 조계종 미래에 더욱 큰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면의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루어지면서도 이런 원칙적인 문제의 선을 분명히 긋고,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 나가는 조치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올바른 역사 청산을 통해 새로운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것 만이 대화합을 이루는 바탕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대화합의 전제 아래 대의명분을 분명히 하고 사면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그에 따라 차분히 사면의 절차를 밟아나가기를 촉구한다.

황룡사 전시관의 조건

신라 최대의 국찰이었던 황룡사지 인근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선다. 경주시가 2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에 착공해 2002년 완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제 최대의 호국사찰이었던 익산의 미륵사와 함께 삼국시대의 사상과 예술, 삼국의 불교관과 호국정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찰인 황룡사는 삼국통일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상징성이 규모 못지않게 큰 곳이다.

황룡사지가 발굴된 지 30여년을 바라보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할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제라도 이곳에 유물관을 세운다고 하니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황룡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 몇 가지를 관계당국에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관이 그 외형이나 시설에서부터 조경에 이르기까지도 흠잡을 데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대부분 전시관들처럼 동선이 너무 길어 지치고 지겨기 짝이 없는 관람이 되게 않게 해야한다. 몇 번을 찾아도 새로운 느낌이 들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람객의 처지를 먼저 배려하는 전시관으로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둘째, 불교유물을 단순히 갑나가는 옛날 물건을 전시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으로 임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불교유물은 신행의 대상인 성보이다. 거기에는 우리 민족의 사상과 역사가 숨쉬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무형의 삶의 슬기와 의지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의 원형찾기 노력이 전시관 건립을 계기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지 등 유적발굴에서 예산이나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로 발굴조사가 점차 시들해지는 경우를 너무도 자주 보아왔다. 황룡사지는 조사발굴이 진행되면서 그 규모나 가람배치 등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미지의 사지다. 신라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 7백여년간의 사력을 지켜온 황룡사지인만큼 그 매장유물도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조사발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 둔다.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선무도 널리 알려졌으면

얼마전 KBS-TV에서 선무도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산사에 계신 스님들의 비밀'이란 내용의 흥미있고 독특한 소재였다.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무도를 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중국 소림사에서나 무술을 하는 스님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통불가의 선무도를 우리나라 스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선무도를 배우는 과정도 좋았다. 선무도가 일반인들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

김갑숙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달라이라마 입국 허용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는 현재 지나친 자본주의 사상으로 정신문화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세계적 정신지도자를 자기나라로 초대하여 강연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코자 하는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인해 초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소리이다. 달라이라마의 작년 뉴욕 강연 때 엄청난 인파로 인해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소식은 다들 알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세계적인 정신적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런 분을 한국에 모신다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무척이나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고개를 흔든다면 진정 우리 민족을 위한 정부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IMF의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물질적인 공허를 정신적으로 채워나갈 좋은 기회임을 정부에서는 자각하고 달라이라마의 입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승배 〈woolim95@hanmail.net〉

시민연대 종교색 없어야

일부 종교학자들은 한국에서도 종교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요즘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있는 시민연대 운동이 만일 특정종교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종교화합이라는 범국민적 민의를 져버린 망국적 처사가 될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에게도 여러 곳에서 종교와 관련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명단 선정에 있어 개신교의 자기몫 챙기기, 대통령 부인의 개인종교활동을 위한 외국방문, 성공회출신 종교인의 청와대 대거입성 등 종교적 편견에 치우친 모습이 여기저기 보인다. 모두가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종교간 화합을 해치는 요소들이다.

종교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무조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민족의 장래는 아랑곳않는 그러한 집단은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풍토가 아쉬운 때이다.

박인탑 〈pit@hanmail.net〉

가정마다 원불 모셨으면

언제부터인지 부처님을 집에 모시면 좋지 않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러한 말은 어느 경전을 살펴봐도 없는 근거없는 낭설이다. 이교도들이나 무당, 점장이 입에서 나온 유언비어가 분명하다. 인도,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어느 곳을 가더라도 불교를 믿는 불자의 집에는 부처님을 모셔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만이 그런 유언비어가 나도는 것이다.

경전에도 "부처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나무로 조각을 하거나 흙, 철, 청동으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 집에 모시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요즘은 신심있는 진실한 불자집에 가보면 불단을 설치하고 원불을 모셔둔 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원불을 집에 모시는 것은 부처님을 아침저녁으로 뵈오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 수행하겠다는 원을 매일 다지는 일이다. 부처님을 집에 잘 모시면 분명히 좋은 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청봉스님 〈jh8888@chollian.net〉

기독교방송 불교왜곡 심각

공중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취하다보면 불교를 왜곡하는 종교 편향적인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1월28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듣게된 기독교방송의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도 분명히 불교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에는 택시기사가 나와 간증을 하는 코너가 있었다.

그는 백수건달에다 노름꾼이었는데 어느날 좋은 사람을 알게돼 그 집의 승용차 기사로 일하게 됐다. 주인집에서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바른 삶을 살게 됐고 지금은 택시기사를 하며 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신앙간증 내용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마운 주인집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차마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지옥에 빠지기 전에 구원해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초월하면서까지 무연자비를 베푼 은인이 자기 종교와 다른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택시기사도 어처구니 없지만 간증자를 부추기는 진행자와 다른 종교를 비방 왜곡하는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낸 기독교방송의 행동은 더더욱 간과할 수 없다.

'자신의 종교를 진정 사랑한다면 남의 종교를 더욱더 존중해야 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겨 국민의 공기인 방송 매체에서 이제는 더이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종교편향적인 언동이 사라지길 바란다. 정복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목탁소리

강 지 연 〈취재1부 기자〉

기자와 취재원

2월초 파라미타 이병두 사무국장이 파라미타 관련 기사를 쓴 주간불교 김수정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일어났다. 취재원이 기자에게 기사에 관해 항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국장은 기사에 대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서 김 기자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 공인으로서의 자리를 망각한 행태인 것이다.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 것이", "이 XX야"하고 욕을 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었다. 김 기자가 여자이고 어려서 만만하게 보였던 것일까. 기자이기에 앞서 여자라서, 어려서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된다. 성별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자와 취재원으로 만나는 공적인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교계에서는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은채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항의할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도 밝히고 조목조목 틀린 부분을 지적한다면 기자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 기자에게 욕을 퍼부어 놓고 이 국장이 취한 행동은 더 가관이었다. 팩스로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낸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진솔하게 반성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 국장은 다급하게 그 자리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불교기자협회가 이 일을 여기저에 대한 성폭력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자 직접 찾아와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파라미타 사무국장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이 국장의 행동은 결국 파라미타 회장인 지홍스님에게까지 누를 끼친 셈이 되었다. 회장스님이 직접 주간불교에 찾아가 공식사과를 하고 사과문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 국장의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파라미타 책임자인 지홍스님의 사과방문을 계기로 이번 일을 일단 수습됐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대불교'를 읽고

사이버포교 신중해야

묻습니다 사이버 불교세상을 주장하는 집중기획물이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첫째, 사이버 포교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제 컴퓨터 회사와 결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사찰이나 불자에게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불교를 접하면 사찰을 덜 찾게되어 보시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버 포교로 거의 모든 불자가 집에서 불교를 접하게 된다면 사찰에 갈 필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사찰은 보시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포교를 주장하려면 우선 사이버 공간에 사찰별 보시함을 마련하는 장치도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때문에 사찰이나 불자들이 나서서 사이버화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승가에서 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직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 포교를 주장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면 고맙겠다.

장인식(hangsem@netian.com)

전세계에 열린 포교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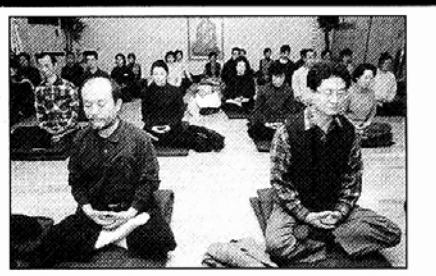
답합니다 '사이버포교를 주장하기에 앞서 보시금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의견은 어폐가 있다. 스님들이 신도 보시금에만 의지해 사는 세상은 지나가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으로도 수익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찰 홈페이지에 광고를 유치해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찰 자체의 자료를 유료다운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버 포교는 사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불교를 접하게 된 이들이 사이버 세상에서 보여지는 자료로만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자들도 절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자료만 받지는 않는다. 한 두사람의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문관을 설치하고 알찬 내용과 신선한 디자인으로 꾸민다면 전 세계인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보고가 바로 인터넷이 가진 힘이다. 인터넷은 평면적인 공간이 아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법당을 만든다고 해서 사찰이 외면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만이 지닌, 엄숙하면서도 고아한 멋을 인터넷으로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2000년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 생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 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불선학대학원(비정규과정)을 설립하고 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1일 ~ 2월 26일

모집내용
▪주간반 00명 ·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 TAPE수강)

전형 및 구비서류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1통
자기소개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자격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불교 신 · 불신 불문)

합격자 발표
▪ 2000년 2월 28일 ~ 29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3월 6일(총 15주)
▪매주 월 · 화요일

등록금(학기당)
▪주 · 야간반: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입학식
▪2000년 3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본원 법당

개설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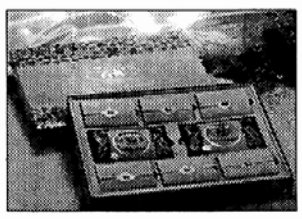
학년	학기	과목명
1	1	선학의 이해/ 참선실수/ 중국선사상사
	2	인도선정사상사/ 선전개설/ 육조단경
2	1	한국선사상사/ 선어록 강독/ 선과 서양철학
	2	경허,만공선사상/ 선과 현대사회 선과 노장사상
교수진		법산(동국대), 현각(동국대), 종호(동국대),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각성(전해인사 강주), 심재룡(서울대),윤원철(서울대), 김호성(동국대) 한중광(동국대), 박영재(서강대), 신규탁(연세대) 계속 초빙중
※ 졸업 후 전문 참구과정: 조주록, 임제록, 무문관, 벽암록 등 선어록 참구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착순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본원 사무실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
전화: 02)541-0002~3 / 팩스: 02)541-0004
E-mail: moobool@netsgo.com
moobool@channeli.net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1900년대 초 중흥사 전경. 현재 중흥사 터는 북한산성 안에 있는 폐사지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 기념물 제136호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 나머지 폐사지들은 대부분 멸실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산 향림사터 찾았다

조계종 '북한산 불교유적 보고서'

불교문화재 발굴단 첫 성과
사찰 21곳 문헌기록 확인



◇조계종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이 새롭게 발견한 향림사터. 깍아낸듯한 축대의 모습에서 고려시대사찰 양식을 읽을수 있다.

호국불교의 얼이 서린 북한산 일대의 불교유적들이 멸실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보호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문헌에 따르면 21개 호국사찰들이 북한산성 안에 있었는데, 현재 국녕사 진관사 승가사 문수사 상운사 원효암 등 6개 사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찰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단장 일철)이 9일 발간한 〈북한산의 불교유적〉에서 밝혀졌다.

조사발굴단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신증동국여지승람〉〈북한지〉에 수록된 21개 사찰의 정밀실측 ·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이 보고서를 펴냈다. 1600여 년의 불교사를 간직한 채 멸실되어가는 북한산의 불교유적들을 현실로 끌어낸 것이다. 북한산 불교유적에 대한 최초의 자료집이며, 조계종의 자체 지표조사와 발굴 능력을 검증하는 첫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조사의 의미는 특별하다.

북한산에 소재한 사찰들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선능 스님의 〈북한지〉에 따르면, 북한산성이 축조되면서 산성을 지키기 위해 21개 사찰들이 중수 · 건립됐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고의적인 방화가 저질러졌고 6 · 25와 경제개발기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불교유적이 파괴됐으며,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형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얻은 가장 큰 성과는 고지도와 문헌상으로만 전해온 고려시대 사찰 향림사 터를 확인한 것.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발굴단장)은 "북한산 향로봉 아래 2천여 평의 절터에서 고려시대 주초석과 탑부재, 와편 등을 발견했다"며 "이곳이 향림사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림사는 11세기 거란족 침입 때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임금의 관)을 옮겨 모셨던 행궁으로, 고려 초기의 가람 양식과 왕실건축의 전모를 밝혀줄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상운사 삼성각에 봉안된 석불좌상의 조성연대가 1497년임을 밝혀냈으며 북한산성 축조와 더불어 조성된 불상 3구도 발견했다. 이외에도 봉성암과 용암사터의 중간지점 계곡에서 후기 구석기 유물로 추정되는 석기(긁개)를 수습했다. 지금까지 서울 인근에서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발굴이 이뤄져 다량의 구석기 유적이 출토될 경우 선사시대 연구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발굴단장 일철(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스님은 "이번 조사는 조계종이 주관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이 깊다"고 전제한 뒤 "성곽 복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축성과 방비의 주력이었던 승군들의 절터와 고려시대 명찰이었던 향림사, 삼천사 터를 발굴 · 복원해 교육현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북한산의 불교유적〉에는 정재훈(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발굴단장), 김창균(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씨 등의 논문이 수록돼 있어, 학술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이들 논문은 〈북한지〉에 누락되었거나 이 책 이후에 찬술된 비문 · 기문 · 시문 등을 새로히 밝혀 내어, 북한산 불교유적의 면모를 꼼꼼히 살피게 하는 좋은 돋보기가 되고 있다.

불교문화재 조사발굴단은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 북한산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발굴과 보존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3월부터 강화도 지역 40여 곳의 절터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뮤지컬 '오! 부처님' 4월 대구서 만난다

무용 · 합창단등 60여명 연습중

대구지역 첫 창작 불교 뮤지컬 '오! 부처님'이 4월 15일~17일 대구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오! 부처님'은 출가에서부터 성도에 이르는 부처님의 구도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이 주최하는 이번 뮤지컬은 중견 불자 연극인 정광진씨가 제작 및 극작을 맡고, 한국불교음악협회 이사 이달철씨(세종미디어 대표)가 음악을 담당한다. 연출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 연극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극본 이만희)'를 연출한 박현순씨(극단HMC 대표)가 맡았다. 박씨는 이 연극으로 지난해 대구연극제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억여원의 제작비가 투입될 뮤지컬 '오! 부처님'은 총6막 12장으로 구성됐다. 1막은 사문유관과 유성출가상을, 2막은 설산수도상을, 3막과 4막은 타화천궁에 살고 있는 마왕 파순과 세 딸이 싯타르타 태자를 유혹하는 장면을 담는다. 5막은 수하항마상을, 6막은 녹원전법상을 그려내게 된다.

싯타르타 태자역은 정광진씨가 맡았으며, 정반왕역은 바리톤 이단열씨, 데바다타역은 테너 허철영씨가 연기한다. 이밖에 성석배, 최주환, 박상희씨 등 지역 연극인 20여명과 지피(ZIPPY) 무용단, 합창단 등 총 60여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음악, 무용, 연극, 조명 등 각 분야를 망라해 선보일 이번 작품에서는 랩과 테크노 등 최신 유행음악도 도입해 극적인 재미를 더할 계획이다.

연출을 맡은 박씨는 "싯타르타 태자 마음 속에 내재돼 있는 중생심과 여래심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고뇌하는 현대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뮤지컬 본래의 형식에 충실하여 예술적 감흥과 대중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윤호 기자



◇경북 군위군 부계면에 소재한 '군위삼존석굴'(국보 109호) 현재 '제2석굴암'으로 통칭되고 있다.

'군위삼존석굴'로 불러주세요

지역 주민들이 '석굴 이름 찾기'에 나서 화제다. 문제의 석굴은 바로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군위삼존석굴. 경북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에 있는 이 석굴은 1927년 부계면 주민 최두환씨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뒤 1962년 문공부 학술조사를 거쳐 국보로 지정됐다.

그런데 관청 공문, 교통표지판, 관광지도 등에 공식 명칭인 '군위삼존석굴'보다 '제2석굴암'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제2석굴암이란 명칭은 조성시기가 뒤떨어진 경주 석굴암보다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주 석굴암의 아류로 보이게하기 때문이다.

군위삼존석굴은 신라 소지왕 15년(서기 493년) 극달화상이 경주 석굴암보다 280여년 앞서 창건한 석굴로, 석굴암과 달리 천연암벽을 뚫고 불상을 안치한 본격적인 석굴이란 점에서 한국불교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경북 군위군 일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들은 모두 한글로 '제2석굴암', 영문으로는 '2nd Sokkuram'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삼존석굴이란 공식명칭을 공문서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 '팔공산석굴암' 등과 같이 군위삼존석굴의 위상을 높일 새 이름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능인스님 찬불가요 1집



능인스님(서울 백운사)의 '찬불가요 1집'이 나왔다.

이 음반에는 출가수행자의 인간적 번민을 노래로 담은 '산사의 낙엽'을 비롯 스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나무관세음보살' 등 10곡이 담겨있다. 스님은 찬불가요와 더불어 '아침예불 · 천수경' 독송 음반도 함께 발매했다.

스님은 "출가해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체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 찬불가요를 제작했다"면서 "민요풍의 대중적 찬불가요를 통해 불교포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 단신

전주 박물관 '사뇌사 · 흥덕사 유보전'

국립전주박물관이 15일~3월 12일까지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조명하는 '청주 사뇌사 · 흥덕사 유보'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93년 청주 무심천변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사뇌사의 금속공예품과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을 찍어낸 흥덕사지에서 출토된 유물 등 1백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사뇌사 유물은 법음구, 공양구, 생활용구 등으로 구분해 전시되며, 유물의 보존과학적 처리, 중요유물의 해설과 사진이 담긴 전시보조 패널도 설치했다. 흥덕사지 유물은 다량의 기와와 청동범종, 금강저, 청동용두장식, 청동발 등 금속공예품이 주종을 이룬다. (0652)223-5652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 펴내

'문화의 영역이 경제적 영역과 결합함으로써 산업적 생산 및 소비의 대상물로 나타나게 되는 분야'

문화관광부는 최근 펴낸 〈자료로 보는 문화상품〉에서 문화상품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 책은 지난해 문광부에 신설된 문화상품과에서 실시한 문화상품 실태조사 결과를 수록,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현주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문화상품 시장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주요 쇼핑 품목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보다는 의류, 피혁, 신발, 보석, 화장품, 주류 등 다른 나라에 피해 비교적 저렴하고 질 좋은 산업제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복, 한글, 김치와 불고기, 불국사와 석굴암, 태권도, 고려인삼, 탈춤, 종묘제례악, 설악산 등 한국을 상징하는 문화상품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상품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현황, 공예품 활성화에 대한 관련 단체 의견, 공예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계주요국의 공예산업 통계와 수출입 동향 등을 담고 있다.

불교인터넷TV의 아트갤러리



불교인터넷TV가 사이버공간에서 아트갤러리를 열었다. 10년째 촛불속에 나타나는 부처님을 촬영해 온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연숙씨의 사진전을 마련한 것.

아트갤러리 내에는 달마관과 제불부처님관, 불교소품관 등 세 개의 전시관이 별도 조성돼 렌즈에 담긴 신비한 불교의 세계를 보여준다. 달마관에서는 촛불이 탈 때 초의 심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순간 포착한 작품과 촛농이 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조성된 불상들의 모습을 담았다. 제불부처님관과 불교소품관에서는 촛불속에 형상화된 불보살과 불교상징물의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다.

200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요강

■ 불교학과
■ 범패과
■ 불교미술과

동방불교대학

교육내용
1) 불교학과(정규 및 통신생) : 불교학 및 포교 전반
2) 범 패 과 : 상주권공(불교전통의식)
3) 불교미술과 : 단청·불화·조각·한국건축사·문화재보호법 등.

응시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1) 신입생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강원 사집과 이상의 수료자
다)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가) 정규대학 졸업자 나)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1월 17일(월) ~ 2월 26일(토)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전형일자 2000년 2월 27일(일) 10:00~17:00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 반명함판 사진 6매

전형료 ₩30,000(불교미술과 ₩40,000)

참고사항
가. 승려들의 소양 함양을 위한 내전 및 서예 특강 실시함.
나.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게는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라.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마.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바.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 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원(☎ 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 733-3346)

㉾136-022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763-0229, 8536. FAX 764-5883

불교문학 장래 어둡지 않다

고재석 교수 평론집 '숨어있는 황금의 꽃'



"불교가 문학사에서 소외되고 있다."

고재석 교수(동국대 국어교육과)는 최근 펴낸 평론집 〈숨어있는 황금의 꽃〉(동국대 출판부)에서 현대에 들어 오면서 불교와 문학사이에 단절이 생겼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고전 문학연구에서는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 연구가 많지만, 해방 이후의 문학연구에서는 성과가 극히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절의 연유는 무엇일까. 고 교수는 우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불교와 문학의 지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찾는다.

"불교와 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사유나 욕망 등에서 비롯되는 행동의 세계를 묻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가 하는 추구 방식에서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 예로, 고 교수는 문학은 애욕, 명리, 분노 등 번뇌의 세계에서 고통을 겪는 인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만, 불교는 그것이 아무리 예술적인 작품이라도 있는 그대로의 인간성에 밀착하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한 부정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불교문학은 불교와 문학이 숙명적으로 갖고 있는 이율배반적 관계 속에서 성립하는 문학이다. 즉 성과 속이라는 대극적인 지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성립하는 역설적인 문학이 불교문학이라는 것이다.

불교의 사유 문학의 형상화 둘 아닌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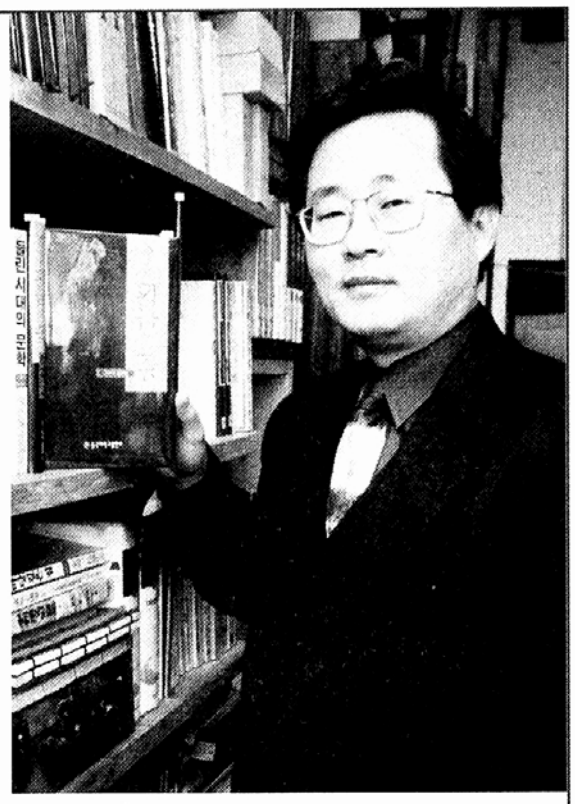
〈님의 침묵〉이 훌륭한 문학으로 평가되는 것도 불교문학이면서 불교문학이 아니고, 불교문학이 아니면서 불교문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학과 불교 또는 사유와 형상화의 차원을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차원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란 것의 그의 논리이다.

고 교수는 또 다른 이유로, 문자를 보는 관점을 들고 있다. 스님들은 탁월한 문장가이면서 문학적 행위를 부정하고, 작가들은 불교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런 의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는 언제나 문학의 주변에서 떠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 교수는 "문학과 불교는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들은 차원을 달리하고 역설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처음부터 나란히 걸어왔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며 "불교문학은 자아확립이 대립되는 이율배반의 관계 속에서 피면서 지고 지면서 피는 황금의 꽃이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문학은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 앞서 고 교수는, 불교는 과연 이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했는가하고 되묻는다. 그리고 그랬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단정한다. 단지 불교계는 침체된 국면을 회복하고 우월적 지위를 확립하는 데 분주했을 뿐, 국민들의 내면 세계와 정신문화를 쇄신하려는 의욕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불교는 많은 신도수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종교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는 것이 문학평론가로서의 평이다.

고 교수는 "불교문학은 괴롭고도 즐거운 화두이다"며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한다면 불교문학의 장래가 그렇게 어두운 것은 아니다"며 조심스럽게 앞날을 전망한다.



이밖에도 이 책은 만해스님의 문학, 1910년대 문학사와 작가, 현대문학 작품론을 싣고 있다. 값 1만1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청공스님 어록집 나왔다



운제스님 번역 상당법어·산거시등 수록

한국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스님에게 법을 전한 중국 임제정맥의 18대 적손 석옥 청공스님(1272~1352)의 어록집이 번역 출간됐다.

불교춘추사 역대고승총서시리즈 9권째로 나온 〈석옥청공선사어록〉은 지난해 열반한 운제스님이 98년 번역한 것으로 〈만속장경〉(전 81권)중 '중국찬술선종어록멸집부' 편에 실린 석옥 청공선사의 어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석옥스님이 찬하고, 그의 문도 지유스님 등이 엮은 이 책은, 상·하 두권이다. 상권은 가흥부 복원선사에서 주지로 있을 당시의 상당법어, 결제법어 등의 어록을 싣고 있으며, 하권은 천호암에서의 산거시, 오언율시, 칠언절구, 게찬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 사명연수선사 원욱스님이 지은 '복원석옥청공선사탑명' 등도 덧붙여져 있다.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은 서문에서 "이 책은 한국 선불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청공선사는 임제종 호구파로 그 법은 고려말의 고승 백운 경한과 태고 보우국사 등으로 이어져 고려에서 꽃을 피웠다"고 말했다. 값 1만원.

만화로 읽는 고승전기



정수일씨 '왕눈이 스님' 언기스님 일대기 조명

고승의 전기는 불교사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 높이 평가될 대목이다. 철저한 무소유와 수행으로 한 시대의 정신사를 이끌었던 고승들의 삶을 통해 나름대로의 삶과 신행의 좌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승의 전기를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화 〈왕눈이 스님〉(운주사)은 그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는 만화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운주사가 펴내는 고승열전 시리즈 가운데 첫번째 권으로,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흐름을 계승한 편양 언기선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선승으로서 오도의 경지를 체험하고, 대강백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스님의 생애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도서출판 운주사는 〈왕눈이 스님〉에 이어, 원효·서산대사 등의 일대기를 다룬 고승열전시리즈를 펴낼 계획이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세계종교입문시리즈 5권 발간

시공사 샴발라총서

중동지역의 분쟁을 다루는 데,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처럼 종교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각 나라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세계의 종교를 읽기 쉽게 소개한 '샴발라 총서'가 시공사에서 나왔다. 세계종교입문시리즈인 샴발라 총서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등의 주요 종교와, 널리 알려진 소수 종교를 소개하고 있다. 각 종교마다 창시자, 대표 경전과 성인, 기도문과 명상서 등을 두루 다루고 있는 이 총서는, 세계 종교 백과사전이라 할 정도로 자세하게 구성돼 있다.

모두 20권으로 출간될 총서 가운데 이번에 나온 책은, 〈노자와 도덕경〉, 〈바가바드 기타〉, 〈탈무드〉, 〈조로아스터〉, 〈공자의 논어〉 등 5권이다. 올해 말까지 〈미라래빠의 십만송〉(전2권), 〈티벳 사자의 서〉, 〈열자〉, 〈마호메트〉, 〈우파니샤드〉 등을 펴낼 계획이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관악산 인근 문화재

김영헌씨 '관악의 역사…'

관악지역의 유적과 역사를 소개한 책이 나왔다. 이 지역에서 12대째 사는 향토사학자 김영헌씨가 수년에 걸친 꾸준한 답사와 관련 고문헌 조사를 통해 〈관악의 역사를 찾아서〉(예사랑)를 펴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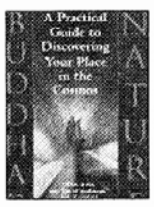
옛날부터 풍수지리적으로 화산(火山)의 이미지로 알려져 온 관악산은 고구려 시대 475년 '잉벌노현'으로 시작해 조선 정조때는 '시흥현'으로 불렸다.

이 책은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낙성대, 사당동 신라토기 가마터, 조선시대 봉천동 선각마애불, 안양 중초사지, 통일신라 당간지주 등 관악산 근처 문화재의 현황과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김씨는 관악산 일대를 답사하던 중 시흥동 삼성산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산성의 인공석축 연못인 '한우물'을 발견, 이를 서울대 박물관에 제보해 사적 제247호로 지정되게 한 이야기 등 남다른 문화재 사랑을 글로 표현했다. 또 관악산 유적과 유물의 현장 사진 1백여컷을 부록으로 싣고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관악산에 담겨있는 수천년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값 1만원.

오종욱 기자

해외신간







▲불성(베스 니스커 지음)= 부처님은 "우리가 삶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몸 안에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마음은 대부분 몸에서 떨어져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중견작가 베스 니스커(Wes Nisker)는 〈불성(Buddha's Nature:A Practical Guide to Discovering Your Place in the Cosmos)〉을 통해 몸에 대한 우리의 앎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니스커는 이 책에서 '마음 챙김'의 네 가지 방편을 제시하고, 우리들이 직접 실참수행에 응용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스스로 몸과 마음에 담겨있는 열정과 집착 등을 바로 보고 몸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깨달음의 여정에 필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Bentam Doubleday Dell Pub. ISBN 0553379992

▲위대한 동쪽의 태양(조압 트렁파 린포체 지음)= 새로운 사회공동체에 걸맞는 '자각의 길'은 무엇일까. 미국 티벳불교계의 정신적 지도자 조압 트렁파 린포체가 뉴밀레니엄 시대의 불자상과 수행의 길을 제시한 〈위대한 동쪽의 태양(Great Eastern Sun:The Wisdom of Shambhala)〉을 펴냈다. 그는 이 책에서 "삼발라 전사(戰士)는 탐욕과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신의 내면에서 움크리고 있는 선(善), 즉 불성을 발견하고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동쪽의 태양으로 표현된 불성은 벼랑 끝에 서있는 현대인들이 나아가야 할 목표인 셈이다. '삼발라 전사(Shambhala Warriors)'는 티벳불교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다.

Shambhala Pubns. ISBN 1570622930

▲일처럼 수행처럼(루이스 리치몬드 지음)= 일터에서도 수행을 계속하고 싶은 불자들이 읽어봄직한 〈일처럼 수행처럼(Work As a Spiritual Practice:A Practical Buddhist Approach to Inner Growth and Satisfaction on the Jab)〉이 발간됐다. 미국인 법사 루이스 리치몬드가 펴낸 이 책은 경쟁적이고 혼란스러운 일터의 환경에서도 신심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명상으로 일터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갈등'을 '영감→수용→활기'의 순환고리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리치몬드는 스테디셀러 〈끼슴이 사라진 호수(Lake of No Shore)〉의 저자로 미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불교계 고승 스즈키 로시에게서 수계를 받았다.

Bentam Doubleday Dell Pub. ISBN 07690233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4	금강경 강해	김 용 욱	통 나 무
5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욱	통 나 무
6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7	부처님께 재를 탈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8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9	원효어록 100선	이 영 일	불교춘추사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도서 안내:(02)737-0695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동문 졸업·41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12주)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불교학 통신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임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오계 지키면 삼독심 소멸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6>

백년 보시 하루 계 지킴만 못해
개차법, 계율 자의적 해석 우려

오계는 모든 선법과 계의 근본이다. 불교의 계율은 오계에서 팔관재계, 사미십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를 비롯하여 범망보살 10중대계, 48경계 등 온갖 계법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계에 의지해 점차로 닦고 배워 삼취정계(三聚淨戒)를 모두 지키면서 청정하여 범함이 없으면 시라바라밀(尸羅波羅密)을 원만히 성취하게 되고, 위없는 보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오계를 수지하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성냄을 없애게 되는데 살생하는 죄는 진심(瞋心)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훔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탐욕을 없애게 되는데 이는 탐심·탐욕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어리석음을 깨뜨리게 되는데 어리석은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지키면 게으름을 없애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 모든 계를 쉽게 깨뜨리기 때문이다.

재물과 이성(異性)과 술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근본이다. 여기에 탐착하면 한 개인은 집안을 망하게 하고, 위정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선생경』에 이르기를, "만약에 누가 오계를 지키지 않고도 생사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선남자여, 만약 어떤 사람이 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극한 마음으로 오계를 받아서 지켜야 하느니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오계는 단지 부처님의 제자들이 몸을 닦고 도를 행하는 규약으로 삼는 것인데, 국가 경제나 민생의 문제 또는 세계 평화의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가정에 있고, 가정의 근본은 구성원 각자의 수신(修身)에 있다. 닦은 후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 오계를 지키는 것은 곧 몸을 닦는 것 — 가정을 다스리고 나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서야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를 평화롭고 삶을 즐겁게 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스스로 오계를 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에 이르기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중생들에게 네 가지 공양(음식, 의복, 와구, 탕약)을 백년 동안 보시를 하더라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계를 지킨 공덕만 같지 못하나니, 계법은 정(情)과 비정(非情)의 온갖 경계에 두루 통용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요즘 널리 행해지고 있는 좋은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오계를 주고 받는 수계산림인데, 수계산림이 겨우 며칠 동안만 행해지는 것은 무척 아쉽다. 그나마도 의식 의궤와 불공을 올리는 행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나머지 짧은 시간에 계법에 대해 강의할 뿐이다. 이런 실정이므로 수계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곧 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면 계를 받은 사람이나 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더하게 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은 죄에다 죄를 더하는 꼴이 되어도 참회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깨끗한 계를 받아 지키려는 이가 있어도 그 문에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다.

계를 지킴에 있어 우리 불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개차법(開遮法)'을 들 수 있겠다. 원래 '개'는 행위의 허가, '차'는 금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어떤 일을 허락하는 것을 '개', 금하는 것을 '차'라고 하는데,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개차라고 하며 이것은 곧 계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계초심학인문』에 "오계나 십계 등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계를 받으면 그 계에 있어서의 지범개차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고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5계와 10계를 받아서 잘 가지고, 범하고 트고 막음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결국 개차법이란 계를 잘 지키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계율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계하는 일을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적으로 이해하여 초심자나 불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생명이 위험할 때는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좋은(犯 또는 開), 죽게 될지라도 계율은 지켜야만 하는 것(持 또는 遮)"을 말하는 의미에서의 '개차법'은 다른 입장과 각도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우바새, 즉 재가의 신자가 받아 지녀야 할 5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인총림 율원장〉

"불타가 깨달은 내용 일상에서 되찾아야"

법회중계

금화사 정초법회

〈2000년 2월 5일〉



대안스님
〈금화사 주지〉

주어진 일 최선 다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며 자연 사랑해야 참불자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먼 과거처럼 여겨지는 정보시대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전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우주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른 깨달음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함께 사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 깨달음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들 삶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물질만능으로 인해 각박해진 이 시대의 문제점들을 가장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금 되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 속에서 불자들은 무엇을 깨닫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텐데,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따라 긍정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신의 소임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소한 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삶의 작은 습관들이 생활 속에 깃들면 가족과 직장과 사회는 밝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즉 이기심을 버리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사상으로 실천하면서 생활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듯 각자가 행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에서 모든 것은 출발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로 회통됩니다.

셋째,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결과입니다. 땅을 뒤집어 파고 하늘로 무언가를 토해내는데, 자연인들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변'이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 깨달음의 실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이로서, 아들딸로서,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과 하나되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굳건히 자리잡을 때, 우리들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인연으로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품안에서 행복해진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중생들에게 던진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메시지는 그야말로 최상의 지혜이자 완전한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내면속에 자리잡은 불성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가능하면 모든 생활을 불교의식 속에서 실천에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훈이 되어야 하고, 이웃과 사회 직장에서의 활동도 바라밀의 실천으로서 생활이 곧 불교요, 불교가 곧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곧 부처님의 자비이고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는 곧 부처님의 품속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정진해야 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인도 지배하며 불교연구 시작

세계의 불교학〈6〉 영국 ①

1925년이후 불교명상 수행 유행
1962년 런던에 첫 티벳사원 개원



◇도시빈민들에게 나눠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영국인 불자들.

인도의 정신적 유산을 보호·연구하기 위한 영국 불교학자들의 노력은 일찍이 영국의 인도식민지배 때부터 시작됐다. 1889년 에드윈 아놀드(Edwin Anorld·1832~1904)는 그의 작품에서 부처님의 삶에 대한 묘사를 통해 영어권 세계에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동시대 위대한 시인이자 빨리경전학회(Pali Text Society)의 공동 설립자인 막스 뮬러는 1879년에 '불교경전(Scared Book of the Buddhists)'의 시리즈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빨리경전학회는 동양의 종교적 문헌을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이 참여했던 연구 단체로, 특히 이들 학자들은 영국에 불교철학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국에 첫 재가불자 나타난 것은 1905년경이다. 미얀마에서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J.R.페인과 R.J.잭슨이 가두설법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재가불자가 통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 불교서점을 열었으며, 1906년 '영국불교학회'를 창설했다. 아시아로부터 첫 불교 전파는 1908년 미얀마에서 온 영국 출신의 비구인 아난다 메테야(Ananda Metteya) 스님과 3명의 미얀마인 재가불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수도 랭군에서 〈불교〉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영국의 불교학회를 통해 영국에 보급왔던 이들 네 사람은 당시 '불교서방포교단'으로 영국을 방문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주로 아힘사(Ahimsa·비폭력)의 윤리를 가진 테라바다 전통의 불교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불교가 무신론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영국인들의 종교인 국교의 박해는 없었다. 1923년까지 메테야 스님은 앞서 영국에 불교를 널리 알리기 시작한 R.J.페인과 함께 영국불교학회에서 〈불교평론〉을 발간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영국불교학회는 해체되었고, 1924년 새롭게 재창립되었다. 새로운 불교학회는 런던대 마치스(A.C Marchs) 교수의 도움으로 〈영국불교(Buddhist in England)〉라는 학회지를 발간하고, 대승불교 특히 일본 선불교에 대한 연구를 지면에 적극 반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리랑카의 고승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Anagarika Dharmapala) 스님이 1925년 런던을 방문해, 영국 불교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바로 영국인 재가불자들 사이에 명상이 주요 수행법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1925년부터 1943년까지 영국의 주요 도시에 명상 센터와 불교도서관이 들어섰다. 또 1925년에는 영국마하보디협회(Britisch Mahabodhi Society)가 설립됐고, 1926년에는 랜카터 게이트 지역에 불교 명상 센터가 개원됐다. 이어서 1928년에는 햄프스테드에 불교 사원이 설립됐고 1938년 런던에도 불교 사원이 세워졌다.

불교학회에서 발간했던 〈영국불교〉는 〈중도(The Middle Way)〉로 이름을 바꾸고 발행 부수를 늘렸다. 1934년에 처음으로 유럽불교인회의가 영국마하보디협회 주최로 런던에서 열렸다. 1930년대 중반에는 선에 관한 관심이 일어났고, 험프레이스의 일본여행보고서 〈동경을 거쳐(Via Tokyo)〉의 발간을 기점으로, 영국 불교는 테레바다 불교보다는 선불교로 관심의 축이 이동됐다. 마침내 1953년 스즈키(Daisetz T. Suzuki)의 방문으로, 영국인 불자들은 실참수행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1959년 중공의 티벳 침공을 계기로 영국인 불자들은 티벳불교에 관심 갖기 시작했는데, 1962년에는 런던에 최초의 티벳사원이 개원되었다.

현재 영국불교는 테라바다불교, 대승불교, 티벳불교가 연합하여 하나의 불교 통합 운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불교학회의 공식적인 행사에 여러 종파들의 젊은 재가불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 특히 명상과 연구, 정신적 경험 등을 주제로 한 강의·토론·세미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의 불교는 방송 매체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이 포켓판의 책으로 값싸게 나오고 있어 불교적 사유에 의한 영국 내 변화는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불교학회가 발간한 1994년판 〈불교 종파 및 단체 목록(Buddhist Directory)〉에 의하면 91년보다 약 60개 단체가 증가한 약 270여개의 불교 단체와 센터가 영국과 아일랜드에 등록되었다. 영국 불교는 불교를 처음 접했던 1880년대 이후 질적 양적 성장을 계속하여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불교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명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동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괘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邊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이 상 욱 지음
값 25,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작!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말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무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전국 유명 서점 및 불교서점 절찬리 판매중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쉼 없는 수행자의 투명한 감동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면 빗자루 끝에서 생명이 샘솟는 듯 합니다.
소납은 하루를 시작하면 빗자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빗자루는 나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 글은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교훈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고 담박하고 깔끔한 문장이 잡은 참에 읽힌다. 내 자신도 늘 되돌아 보는 바이지만, 출가 수행자에게는 글 쓰는 일이 수행의 한 여기(余技)에 지나지 않는다. 수행자의 본업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착실한 중노릇이다. 스스로 깨어있고 이웃을 일깨우는 일이다.

-법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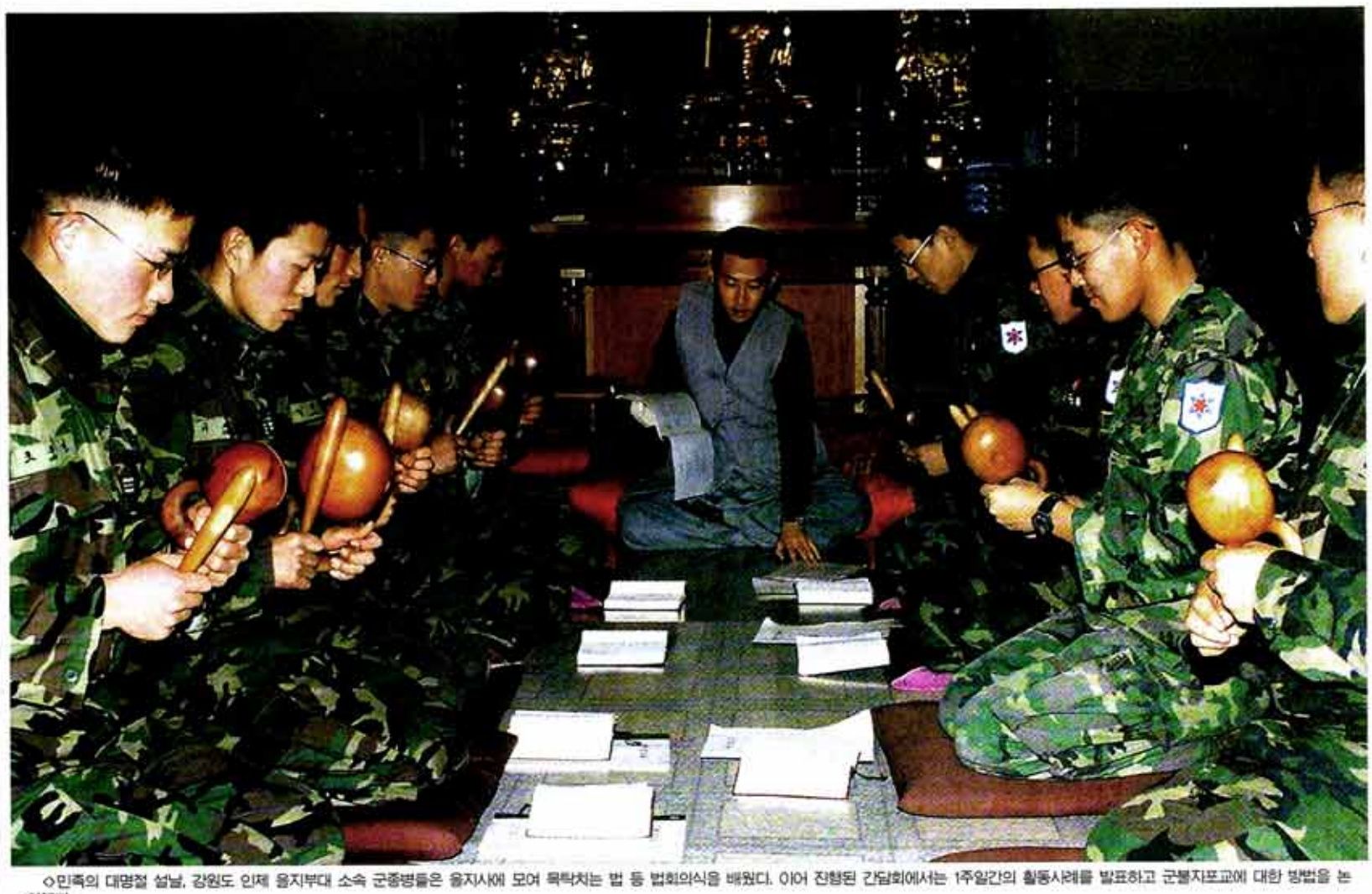


혜총스님 지음 /신국판 / 정가 8,000원 | 부다가야 | 614-052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2동 333-2 전화 (051) 865-4383 · 팩스 865-4821

혜총스님의 중노릇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食菜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입증과 명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강원도 인제 을지부대 소속 군종병들은 을지사에 모여 목탁치는 법 등 법회의식을 배웠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1주일간의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군불자포교에 대한 방법을 논의했다.

군포교 어디만큼 왔나

인제 을지부대 을지사에선

법사-군종병-신도 한마음
신세대 병사 포교전략 골몰

설연휴 격오지위문법회
불자장병들 예불올리고
마음으로 부모님께 세배

불교계가 군포교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군불교는 사병들로부터 '비우호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일고 있는 군전산화, 최신 오락시설 설치, 여가시간 확충 등의 변화에 따라 사병들의 관심이 종교활동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종교는 불교에 비해 전폭적인 지원과 활동을 펼치고 있어 불자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군포교지원사업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등안 불교계의 군포교만큼은 다른 종교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특별한 활동 없이도 법당만 개설하면 사병들이 찾아왔다. 우리의 사상과 문화에 깊이 파고들었던 전통불교의 덕택이었다. 게다가 배고픔과 고된 훈련의 연속이었던 시절, 따뜻한 차와 간식만 마련하면 병사들은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사병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군생활도 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군포교도 변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쵸코파이' '커피'가 군포교의 전부라는 발상은 이제는 용도폐기되어야 한다.

불교계에서는 흔히 군대를 '포교의 황금어장'이란 부른다. 하지만 현실은 말 그대로 황금어장일뿐이다. 주인 없는 풋말만 있을뿐 고기잡은 어부는 없는 격이 됐다. 대부분 불자들이 군대를 포교의 최적지로 꼽고 있지만, 정작 군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그리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의 전도활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사·군종병·신도'가 한마음으로 군포교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군법당이 있다. 그것도 가장 혼경이 열악한 최전방 부대이다. 진원지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을지부대 을지사(주지법사 이상무). 입춘을 시생하는 설악산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잠재울 정도로 을지사 대중들의 포교 원력은 높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에도 이러한 원력은 그치질 않았다.

설날인 5일 을지사 예하법당 군종병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병들과 함께 내무생활을 하며 군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모인 이유는 군종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을지사 법당을 찾은 군종병들은 우선 참선수행으로 신심을 다졌다. 다른 전우들이 설날을 맞아 민속놀이 등으로 한가한 설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이들은 을지사에 모여 목탁치는 법 등의 의식과 간담회, 교리 등을 배우며 포교의 원력을 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선수행이 주요 주제였다. 박준영 상병은 "참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병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사병들이 쉽게 참선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회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다. 이에 대해 다른 군종병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맞장구를 쳤다. 결국 이날 군종병들은 내무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에게 틈틈히 참선지도를 하기로 하고, 참선 수행법을 처음부터 다시 익혔다.

이처럼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군종병 법회는 군종병들이 1주일간의 활동사례를 발표하고, 그 속에서 신세대 사병들에 적합한 포교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을지사는 95년 군의 신앙전력화를 위해 건립된 사단법당이다. 하지만 법사는 1명뿐이어서, 진부령 청룡사, GOP 화랑사 등 모두 9곳의 예하법당까지 손길이 미치질 못한다. 그래서 예하부대의 법사 역할을 군종병들이 대신한다. 매주 군종병 법회를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상무 법사는 "법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군종병은 곧 포교사나 마찬가지이다"며 "군종병 교육이 바로 군포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군에서의 법사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최전방 지역에 배치된 법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정기법회뿐 만 아니라 전방지역 격오지 법회와 위문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을지사의 경우 법사가 1달에 실시하는 정기법회와 간담회, 교육만도 60여건. 여기에 지역민을 위한 법회, 유치원 운영 등까지 합치면 쉴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이번 설 연휴에도 설맞이 격오지 위문법회를 실시했다.

4일 오후 2시 최전방 GOP 인근에 위치한 화랑사. 10여평 남짓한 법당에는 밤새 경계근무를 한 불자병사들이 빼곡히 들어앉았다. 평소 법회에는 50여명이 참석하지만 이날 법회에는 80여명이 넘는 불자 사병들이 참석했다.

딱~, 딱~, 딱~, 죽비소리에 맞춰 불자 사병들이 송을 고른다. 법당에는 침묵이 흐르는 사이, 법당 앞을 지나던 한 병사가 참문사이로 법당 안을 엿본다. 전방고지의 날카로운 바람에 달팽이처럼 몸을 움추린 이 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법당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를 잡는다. 막 경계근무를 마친 병사도 두터운 방한복 차림으로 뒤따라 들어온다.

이어 진행된 법문에서 법사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제거해 주고, 험한 곳에서는 다리를 놓아주고,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달아 줄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이다"며 "산간오지의 최전방에서 만난 전우들이 인생의 도반이라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군생활을 하면 더욱 즐겁고 힘들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회를 마친 법사는 사병불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도 못내 안쓰럽고 미안한 모양이다. 을지사로 돌아오는 길에 격오지 몇 군데를 더 들러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위로했다.

을지사 군인가족 불자들도 법사와 군종병들 못지 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격오지 위문시 위문품을 구입해 동행하는가 하면, 매주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불자 사병들을 위해 국수공양을 한다. 이번 설 연휴에 실시된 일요법회에도 관음회 불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설 연휴를 맞아 격오지 위문부터 일요법회까지 바쁜 일정을 보낸 이상무 법사는 "군대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노력했다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군불교 중흥. 그것은 큼직한 설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부대중 모두가 포교자적 정신과 보살정신으로 앞장서 실천에 옮길 때 가능할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 이 점을 신행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머지않아 황금어장에서 포교의 결실을 건져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마애불을 찾아서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

돋을새김한 연꽃좌대 장중함 부각
사실적 묘사 통일신라 조각 특징

경북 영주시에 있는 이 불상은 강가 바위면의 중앙에 앉아있는 불상과 좌우에 서있는 보살상을 새긴 마애삼존불이다. 중앙의 중심되는 불상은 상당히 커다란 체구로 장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듬직한 코, 곡 다문 입, 평창된 뺨 등 활기찬 얼굴 표현과 당당한 어깨, 듬직한 가슴, 손은 시무외인과 여원인을 하고 있고, 밭의는 양어깨를 감싸고 흘러내린 통견의로 장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좌우의 두 보살도 마찬가지다. 자연바위를 이용한 연과과 불꽃무늬 등을 새긴 광배와 높게 돋을새김한 연꽃좌대 등은 장중한 불상의 특징과 잘 조화되어 더욱 듬직한 본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마애삼존불은 통일신라 시대의 조각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주의 불상으로 높이 평가된다. 보물 제221호.

글·사진=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 금동카드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수맥을 차단하는 동판에 금박을 입힌 「금봉스님 달마그림」을 액와 같이 순금 99% 금책옷을 입어드려서 개금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님 카드모양도 제작되었습니다.

庚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 그림모양은 같으나 색상은 같을 수도 없고 또한 뒷면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솜으로 닦지 않으시면 표면에 흠이 생깁니다.

■ 개금 점안비 : 15,000원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용도: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불안정한 분·건강유지 기획 금봉스님 제작·공급처 반야원


달마도 메달


관음도 메달


지장도 메달

■ 목걸이 줄은 별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동참금온라인
대구은행 : 179-08-084837 예금주 : 연화선원
우체국 : 7022217-0031235

반야원 (053)943-4170

◆달마도 금동 개금 점안 목걸이◆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②

虛空但有名 亦無相貌 取不得
허공단유명 역무상모 취부득
是捉空不得 除此心外 覓佛終不得也
시착공부득 제차심외 멱불종부득야
佛是自心作得 因何離此心外
불시자심작득 인하이차심외
覓佛 前佛後佛 只言其心 心卽是佛
멱불 전불후불 지언기심 심즉시불
佛卽是心 心外無佛 佛外無心
불즉시심 심외무불 불외무심
若言心外有佛 佛在何處
약언심외유불 불재하처
心外旣無佛 何起佛見 邊邪誑惑
심외기무불 하기불견 변사광혹
不能了本心 被他無情物攝 無自由
불능요본심 피타무정물섭 무자유
若也不信 自誑無益
약야불신 자광무익

허공은 이름일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으니 잡을 수가 없다.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는 것도 헛일이다.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마음을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먼저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닫은 분들이 단지 마음 하나만을 말씀하였으니 마음이

부처는 허물이 없으나 중생이 잘못되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하니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다만 바깥의 부처는 모두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을 몰라서이다. 그러므로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며, 마음을 가지고 염불하지도 말라. 부처는 경도 읽지 않으며, 부처는 계도 지니지 않으며,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니는 것도 범하는 것도 없으며, 또한 선악을 짓지도 않는다.

若欲覓佛 須是見性卽是佛
약욕멱불 수시견성즉시불
若不見性 念佛誦經持齋持戒
약불견성 염불송경지재지계
亦無益處 念佛得因果 誦經得聰明
역무익처 염불득인과 송경득총명
持戒得生天 布施得福報
지계득생천 보시득복보
覓佛終不得也 若自己不明了
멱불종부득야 약자기불명료
須參善知識 了却生死根本

부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
마음 떠나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며 마음 떠나 부처 없고 부처 떠나 마음 없다.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다고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면 어찌 부처의 견해를 낼 수 있겠는가? 이는 서로를 속여서 본심(本心)을 알지 못하고 무정물(無情物 : 佛像 따위)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만약 믿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수참선지식 요각생사근본
若不見性 卽不名善知識
약불견성 즉불명선지식
若不如此 縱說得十二部經
약불여차 종설득십이부경
亦不免生死 輪廻三界受苦
역불면생사 윤회삼계수고
無出期時
무출기시

만일 부처를 찾으려면 견성(見性)해야 곧 부처가 된다. 견성하지 못하고 염불하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齋戒)를 지키거나 계를 지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염불은 왕생하는 인과를 얻고, 경을 읽으면 총명해지며,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나고, 보시하면 복의 과보를 받지만 부처를 찾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했으면 선지식을 찾아가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12부 경을 다 외운다 해도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삼계를 윤회하며 고통을 받되 벗어날 기약이 없다.

佛無過患 衆生顚倒不覺
불무과환 중생전도불각
不知自心是佛 若知自心是佛
부지자심시불 약지자심시불
不應心外覓佛 佛不度佛
불응심외멱불 불부도불
將心覓佛 不識佛
장심멱불 불식불
但是外佛者 盡是不識自心是佛
단시외불자 진시불식자심시불
亦不得將佛禮佛 不得將心念佛
역부득장불예불 부득장심염불
佛不誦經 佛不持戒 佛不犯戒
불불송경 불불지계 불불범계
佛無持犯 亦不造善惡
불무지범 역불조선악
不知不識 卽不名善知識
불부지계 역불조선악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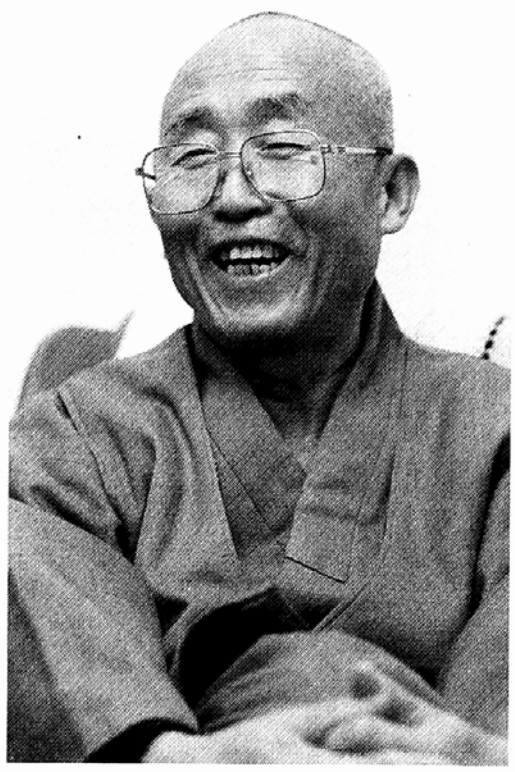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월운스님
동국역경원 원장

한국 불교의 자랑거리는 한둘이 아니다. 16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민족이 일구어낸 문화 유산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가 꽃피워낸 것들이라는 점도 그렇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장경이라 일컬어지는 '고려대장경'은 이제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전 인류의 기림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불교가 온전한 우리말 경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앞의 자랑을 무색케 한다. 하지만 이제는 좀더 당당하게 한국 불교의 긍지를 말해도 될 것 같다. 올해 안으로 '한글대장경'이 완간되기 때문이다.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늦은 오후, 한글대장경의 산실인 동국역경원(이하 역경원)에서 월운 큰스님을 뵈었다. 불교의 생활화를 꾀함에 있어, 불경의 대중화와 그것의 전제조건인 한글화의 중요성을 되새겨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대장경 연내 완간돼요"



· 1928년 경기 장단 生
· 49년 운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56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
· 63년 마산대 철학과 졸
· 59~61년 통도사 강사
· 65년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
· 79~93년 중앙승가대 교수
· 83년~불교전문통신 강원 원장
· 93년~동국역경원 원장
· 현재 봉선사에 주석

— '한글대장경'의 완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각별할 것 같은데요.

▲ 고유의 말과 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1600년이라는 역사로 본다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지요. 한국 불교 차원에서는 물론이지만 문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 교체 또는 새로운 문화적 국면에 대응할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불교 내부를 보더라도 한문을 멀리하는 상황이예요.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불교의 근본 정신이 승계될 수 없어요. 지금도 불교 의식을 행하는 곳이나 포교 현장에 가 보면 불교 교리에 위배되는 부분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축원을 할 때도 '~하게 해 주소서, ~하게 하옵소서' 하는 식입니다. 이건 기독교식이예요. 불교의 '발원과 가피'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원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만 불보살의 가피도 따르는 것이지요.고깔 쓰고 굿을 하는 무당 놀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이 일상화되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경(譯經)'이 중요한 겁니다. 신행의 근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언어가 장벽이 돼서는 곤란하지요.

— 아무튼 새로운 세대들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니만큼, 소요 시간이나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으로 역경원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 35년간 씨름한 결과예요. 지난해까지 288권이 나왔는데, 올해 안으로 30여권 정도가 더 나오면 1차로 완간이 됩니다. 비용은 1천부 제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작비가 1종당 3천만원이예요. 굳이 셈을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됐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1차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역경원의 설립 목적이 '고려대장경'의 번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은 한역 경전이나 범어, 빨리어 경전 그리고 고승들의 문집을 번역하는 일까지를 망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다 마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라도 '고려대장경' 번역을 마무리하고, 그것을 다시 손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판을 낼 생각입니다.

— 일을 진행하시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어려운 점이 참 많았죠. 현실적으로는 인력난과 재정난이 심했어요. 그야말로 양난이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은 종도들의 무관심이었지요. 역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인정해요. 하지만 돌아서면 그만이지요. 그래도 94년 이후부터는 종단에서도 일년에 1권 정도의 예산 지원은 하고 있고 국고에서도 얼마간 지원을 해요. 동대의 지원은 물론이고요. 그밖에도 천태종이나 보덕학회 같은 곳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론 완간 이후의 사업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마 은사이신 운허 스님의 강한 원력이 아니었다면 이만큼 끌고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무관심하긴 해도 비방과 훼방은 없었어요. 그리고 설립 당시부터 조계종단의 사업으로 하되 소속은 동국대 부속으로 했어요. 결과론적인 얘깁니다만, 운영과 관리를 동대에서 맡음으로해서 재정난을 겪기는 했어도 종단의 잦은 분규에 휘말리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조계종단 차원의 사업 중에서도 35년간이나 지속된 것은 이것 말고 없을 겁니다.

— 세세한 말씀을 다 들어보지 않아도 그 동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회향을 보게 된 것은, 역경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불교의 역경사가 궁금해지는데요.

▲ 조선 세조 때의 간경도감을 시작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 뒤로 부녀자들을 위한 언해본이 나오곤 했는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근자에도 개별적인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율·론 삼장에 걸쳐 체계적으로 번역을 한 것은 역경원이 처음이라고 봐야겠지요.

— 현대적 의미의 경전 한글화 역사는 역경원의 역사라고 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1964년에 설립된 후 이듬해인 65년부터 김달진 선생의 잡아함경을 시작으로 매달 2~3권, 매년 20~30권을 냈어요. 올해 안으로 300권을 훌쩍 넘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결코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예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1차 완료라고 했는데, 일단 번역을 마쳤다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할 일이 있고요.

— 또 할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 분류 색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쓰임새를 높이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화를 시도하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래야지요.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인터넷에 올리자는 얘기들도 하는데, 성급한 접근은 화를 불러요. 크게 볼 때, 이번의 번역 완료는 원고를 마친 수준입니다. 퇴고와 추고가 따라야지요.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듬고 또 다듬은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인터넷에 올려도 늦지 않아요.

— 번역의 완성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번역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 료 법 인 효 성 양 방 한 방 병 원
이사장 김 시 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분양안내

구분	금액	비고
2인 1실	각 20,000,000원	전세
1인 1실	30,000,000원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경전 열심히 읽는 것도 공덕"

"역경 인력 양성 관심 가져야"

▲ 번역의 1차적 목적은, 원전의 문장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면서도 원문에 충실한 우리말 형상화가 되어야 올바른 번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현장(600~664)스님도 '5종 불번(不飜)'이라 하여 다섯 가지의 경우는 번역하지 말하고 했습니다. 원전의 표현은 한 가지인데 옮기는 말은 여럿인 경우나, 원전이 가리키는 사물이 이쪽 언어권에는 없는 경우. 또는 외래어처럼 이미 원어가 이쪽 언어에 편입된 경우, 비밀신주처럼 오의(奧義)를 담고 있는 경우, 옛 번역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에서 원전을 그대로 쓰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번역이라는 일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전을 되도록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말에 가깝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아쉽게도 한글대장경을 포함하여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경전들이, 번역된 말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건 번역 수준이나 기술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역도 상당히 있고요. 이유는 꽤 여럿이예요. 경전의 뜻 자체가 다중적이어서 역경가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한역 자체가 번역된 언어이므로 이미 축약된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것까지 고려하지 못해서 비롯된 부분도 있습니다.

— 번역 문제를 거론할 때, '번역은 반역이다'는 표현을 흔히 씁니다. 한글대장경의 번역에 있어서도 원칙 같은 것이 있을 법한데요.

▲ 최대한 원문에 충실하는 것이지요. 일부에서는 한자어를 다 버리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젊은 세대들의 언어 관습까지 포괄한다거나, 각색에 가까운 과감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먼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를 해야 하겠지요.

— 얘기가 너무 번역이라는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역경의 중요성이나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자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평생을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 은사이신 운허 스님과의 인연이 곧 역경과의 인연이 되었지요. 출가 전에 한학을 좀 했었는데, 그것을 아는 분들이 당연히 운허 스님의 상좌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중이 되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한국 불교의 분위기는 참선이나 기도 같은 것이 주류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운허 스님께서 '경학을 하는 것도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역경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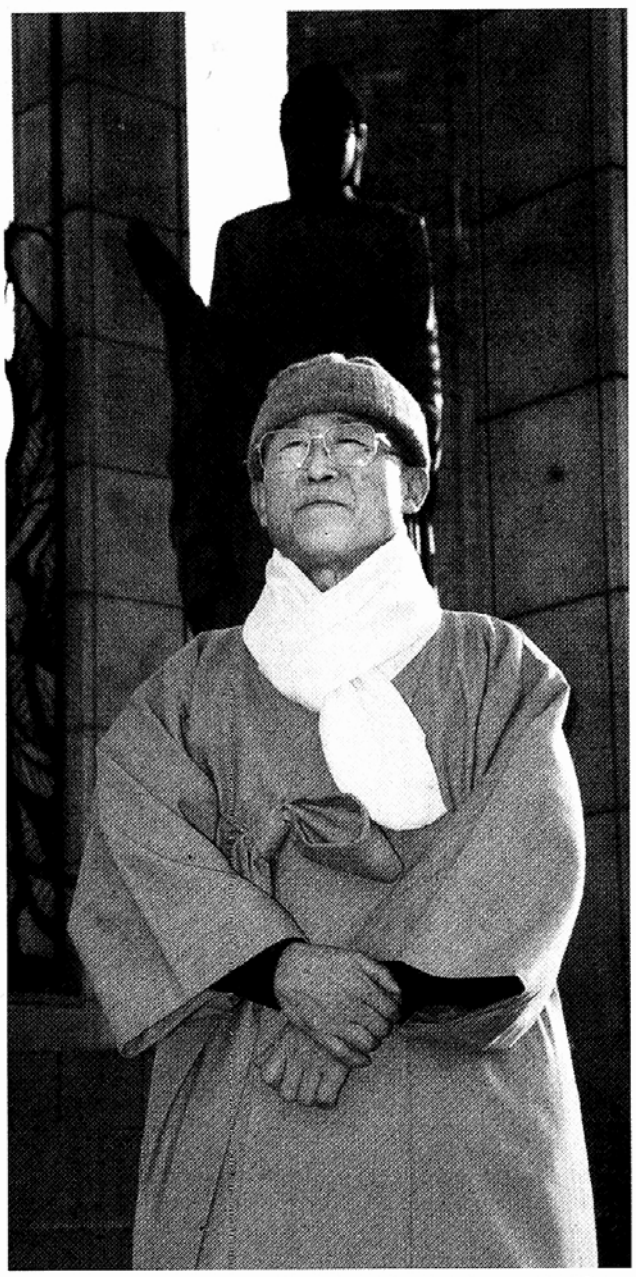
또 주변머리없는 성격도 역경이라는 외길을 걷게 하는 데 힘이 됐을 겁니다. 흔해빠진 잡기 하난 제대로 하는 게 없으니까 말이예요. 그래도 한국 불교가 우리말로 된 대장경을 하나 만들어 냈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어쨌든 집을 짓긴 했는데, 어떤 면에서 차라리 안 지었으면 새로 짓기가 더 수월할 텐데 하는 소리를 들을지, 이렇게라도 내집이 생겼으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집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겠지요.



◇경전의 정수를 가려 뽑는 작업 등 '한글대장경' 완간 이후의 사업을 구상하시는 월운스님.

— 지나친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치고 보완하는 건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젊은 세대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요.



◇동국대학교 교정은 동국역경원의 마당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월운스님의 일상 언어는 세대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 앞으로의 역경 사업을 이끌어 갈 차세대 강사들을 키우고 있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류 검색 작업과 함께 대장경의 내용 중에서 정수만을 가려 뽑아 내는 작업도 해야겠지요. 경학 쪽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고 새로운 불교학을 기대하기는 힘들겠지요.

— 불교의 근본 정신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투철하게 할 뿐 아니라 아니라, 불교학의 밑거름 구실을 하는 역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불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 '포교 3년이면 밀천이 바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대한 소양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 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경 공덕'에 대해서 말합니다.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도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글대장경의 완간은 불보살의 가피가 모든 중생에 두루 미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한자 해독에 대한 부담 없이) 평범한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점을 명심하시고 경전들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 결치게 될 역경원의 사업에 후원자 노릇도 좀 해 주시고요. 한달에 천원 정도의 후원금이라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공덕을 만생명과 두루 나누는 일이기도 해요.

귀하신 말씀에 머리숙여 감사드리고 역경원을 나서는 순간, 문득 '역경삼매'라는 말이 떠오른다. 스님의 지난 삶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후덕한 주지 혜성스님

"따르릉 따르릉...."

조용하기만 한 내 토굴에 새벽같이 전화벨이 울렸다. 부재중 녹음상태로 되어있는 전화기에서 굵직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여기 봉국사인데 방에 있으면 봉국사로 전화 좀 하지. 딸각."

음성을 들으니 봉국사 주지스님이었다.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만 전화가 끊어졌다. 바로 전화를 했더니 새벽에 노보살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성남에 자리한 봉국사는 춘성 노스님의 상족(上足)인 혜성(慧惺) 주지 스님과 이번에 돌아가신 노보살님이 창건한 사찰이다. 주지스님이 처음 봉국사로 왔을 때는 성남시가 생기기도 전이고 절은 형편없이 초라한 오두막 같은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봉국사도 지금은 그때 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

옛날에는 해제철이 되면 만행을 하는 스님들이 많았다. 그 만행을 하는 스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남의 봉국사였다. 절은 초라했지만 주지 스님이 봉국사로 오자 옛날 망월사 춘성 노스님의 회중에 살던 기라성같은 구참납자들을 위시해 많은 스님들이 봉국사 객실로 모여들었다. 많을 때는 20~30명까지 북적될 때도 있었다. 해제철이 되면 비좁은 객실에 평균적으로 열 대여섯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다.

해제철엔 선객 북적
쌀독 열어놓고 사는 절

성남시가 형성되고도 봉국사는 신도들이 그렇게 많지 못했다. 성남이란 곳이 서울에서 살기 힘든 사람들이 뿌리없이 떠돌다가 쫓겨온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곳에 있는 사찰이니 절 살림이 가난한 것은 당연하다. 그런 사찰에 해제철만 되면 스님들이 북적되어 공양미를 충당하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주지스님은 한번도 스님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내색하지 않았다. 그러니 스님들이 유독 봉국사에 많이 모이는 것은 주지스님의 내색하지 않는 덕(德)때문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지스님의 후덕한 가풍을 묵묵히 뒤에서 받침을 해 주셨던 분이 이번에 돌아가신 노보살이다.

이런 일화도 있다. 어느해 겨울이었다. 그날 나는 시내에 볼일을 보러나갔다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울타리도 없는 절 도량으로 들어서는데 마당을 가로질러 웬 사내가 어깨에 부대 하나를 짊어지고 나오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누구냐?"하고 소리질렀다. 그러자 그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아주 태연하게 "예, 죄송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쌀 좀 퍼가지고 갑니다."하는 것이었다. 내가 더욱 놀라서 무어라고 말을 하려는데 그 사내는 벌써 저만큼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나는 주지스님에게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쌀을 잘 단속해야 한다는 말도 아울러 드렸다. 그러나 스님은 내말을 듣고도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였다. 같이 살고 있던 법용(지난번에 이야기한 그 법용스님이 아님) 스님이 밖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다가 또 쌀부대를 지고 나가는 사내를 만났다. "여보시오, 무엇하는 사람이요?" "예! 배고픈 사람입니다. 쌀 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보고를 받은 주지스님은 역시 아무 말씀이 없었다. 봉국사 주지 혜성스님은 이런 분이다. 여간한 일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분이다.

옛글에 무심한 선사의 심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시가 있다.

"물감을 허공에 칠한들 허공이 물들며/ 칼로 물을 끊은들 물이 끊기랴/ 사람마음 안정됨이 물과 허공 같으면/ 무슨 물건 대한들 밉고 고움 있으랴(彩筆描空空不染 利刀割水水無痕 人心安靜如空水 與物自然無怨憎)"

노보살님의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봉국사 신도들과 주지스님의 사제스님들과 스님의 문도 몇명과 노보살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다. 전화를 받고 내가 달려가자 주지스님은 당신의 사제인 혜광스님과 같이 직접 염을 하자고 했다. 염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노보살님에게 계(戒)를 설했다. 옛날 석봉 노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성화'에서 '화(華)'자를 빼고 그냥 '법성(法性)'이라고 하는 불명도 내렸다. 이제 청신녀 법성화에서 다음 생에라도 수행자 법성이 되라는 뜻이다. 평생을 절에서 스님들과 같이 살아왔으니까 다음 생에는 출가 수행자로 살아 큰 도를 이루라는 뜻이 담겨있다. 그리고 장의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우리들이 몸을 씻어드리고 염을 해드렸다. 영결식을 하는 날도 스님들이 관을 들었고 의식도 간단하게 반야심경 한편을 독송하는 것이 전부였다. 지극히 간결한 의식이었다. 바로 이것이 선객들의 법식이고 춘성 노스님으로부터 이어진 봉국사의 가풍이기도 하다.



그림 · 문병성

자 이 정도면 봉국사에 왜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모였었는 지를 알았을 것이다 사실 불친절하게 하는 것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하는 데 지나친 친절과 관심도 역시 불편하게 하는 것이다. 객실에 여러 스님들이 모이게 되면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 재미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참 아님기기 힘든 일도 일어난다. 그런 것을 그저 무심하게 못 본척 지나는 그런 분이 바로 봉국사 주지 혜성스님이다.

說法 개인지도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설법방법론, 강의기법, 화술, 상담기법 ●음성학, 태도학, 修辭學,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서예반 강좌 개설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수시접수
▶ 회원관리 : 정회원(매월 1회 모임) ※발표회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법사 : 金 哲 會 박사
※ 출장지도 가능합니다. ※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5925 FAX (02)737-8725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염·방부·방충·방수)

효과
1. 문화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0%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3.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4.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 통기성(Breathung) 양호 · 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MOLD-MOVE (곰팡이 이끼 제거제)

효과
MOLD-MOVE(곰팡이 이끼 제거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본 제품은 버섯, 진균류, 곰팡이, 이끼, 백선, 해조류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제품은 도로시 주변의 어떤 화초나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 자연 소멸되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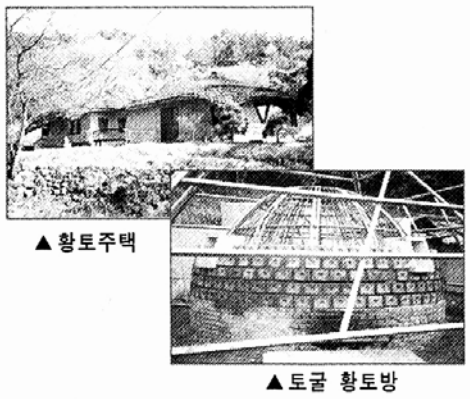
용도
· 목재 : 문화재, 사찰, 한옥, 통나무 주택, 목조 주택, 나무(과수, 관상수) 기타
· 콘크리트 : 벽돌, 대리석, 화강석, 모든 석재 등
· 기타 사용범위 : 공항의 활주로, 운동장, 수영장, 정수장, 테니스코트, 방과제, 항만, 부두의 창고, 잔디밭 등 이끼가 발생하는 곳에 적용함.

MOLD-MOVE로 곰팡이, 이끼 등을 제거하고 WOOD-SEAL 및 PRO-SEAL로 처리하면 수년간 재발생하지 않는다.

15주년 경·향·하·우·정·패·어
2000.2.24~29 COEX 3F - F411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대륙
황토방 · 황토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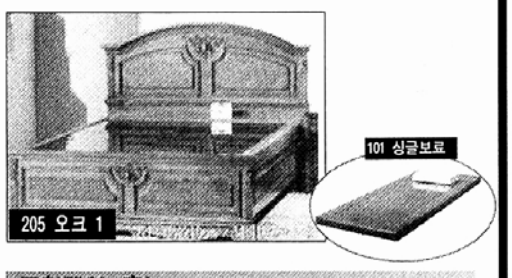
▲ 황토주택

▲ 토굴 황토방

◐ 양질의 순수 황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숙면, 쾌변 그리고 氣…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돌침대의 효능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원적외선 (건강광선)의 풍부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 풍부한 원적외선을 안방에서 반 영구적으로 온 가족이 사용하실 절호의 기회입니다.
★ 원적외선(건강, 생육광선)은 동식물을 발육시키고 인체내부로 직접전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돌침대구입시 특전 : 구입시 100만원 결제,잔액은 2개월 무이자 분할, 제품가격 :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49만원(Q)부터 :한정판매

돌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가람의 장면들 21

귀신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귀신사 대적광전. 백제터에 세워진 신라계 건물로, 가람의 배치법이나 남겨진 건물의 구성원리에서 천년전 치열했던 사회적 갈등을 읽을수 있다.

백제터에 세운 신라 화엄가람

백제유민 포용위해 세워

신라 건축물 옮겨 놓은듯

좁고 높은 수직모습 특징

전북 김제군 금산면 청도리, 유명한 모악산 금산사에서 불과 4k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귀신사 혹은 국신사라 부르는 작은 가람이 있다. 금산사의 유명세에 가려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신라시대 '화엄십찰'의 하나로 창건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찰이다. 의상대사가 부석사에서 화엄교학의 터전을 연 이후 그의 제자들은 전국에 퍼져서 수많은 화엄사찰들을 건립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10개의 사찰에는 '화엄십찰'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화엄사 부석사 해인사 갑사 범어사 불국사 등은 지금도 대단한 가람들이며, 현재는 거대한 절터만 남아있는 서산의 보원사도 포함되어 있다. 귀신사가 이러한 쟁쟁한 사찰들과 함께 화엄십찰의 하나였다는 것은 얼핏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화엄십찰이라 이름붙은 사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두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그 지리적 위치이다. 통일신라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는 물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일대 지역이었다. 공통적으로 화엄십찰에 속하는 사찰들은 중심지역을 벗어난 변방에 자리잡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석사는 옛 고구려와의 경계지역에, 해인사와 화엄사는 옛 백제와의 경계에, 불국사와 범어사는 왜(일본)와의 경계지에, 그리고 갑사 보원사 귀신사 등은 아예 백제 고토의 중심에 자리잡았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명칭은 화엄십찰이지만, 실제로 수용한 신앙은 화엄이 아닌 아미타신앙(부석사), 정토신앙(불국사), 미륵신앙(범어사) 등으로 범종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통일 전쟁까지 신라사회를 이끌었던 신앙은 왕공이나 자장으로 대표되는 계율학이었다. 가장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일사불란한 국가체제를 갖추고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기에 더없이 적절한 국가적 사상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나라가 통일이 된 이후에 국가적 과제는 분열되었던 민족문화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통합적 사상이었고, 모든 불교를 포용하는 화엄학이야말로 통합의 불교로서 신라의 국가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화엄불교는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분열의 갈등이 가장 심했던 옛 고구려나 백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포교활동을 벌였고, 그 가운데 지역적 핵심 가람들이 후일 화엄십찰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구려 백제 왜와의 경계에 중심 사찰들을 세움으로써 신라 정부의 보위에도 일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복속되었지만, 여전히 옛 백제민들은 정서적 사상적으로 신라를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미륵신앙의 중심지인 모악산 일대에는 미래불 신앙이 신라정부에 대한 비판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우려가 다분했다. 귀신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에서 세워지게 되었다.

지역적 반발이 심했던 만큼, 귀신사 창건은 신라 정부나 의상계 화엄종에서 직접 간여하게 된다. 재원도 신라에서, 목수와 건축기술도 신라인들이었을 것이다. 사상적 배경 뿐 아니라, 건축과 기술마저도 신라의 문화를 고스란히 백제 땅에 재현한 결과가 되었다.

물론 현재의 건물들은 임진란 이후의 것들이지만, 가람배치법이나 건물의 칸살잡이에는 신라적인 속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 뒷산의 경사지에 자리잡아 두 단의 높은 석축을 쌓아 터를 닦았다. 아랫단에는 대적광전이, 윗단에는 이른바 백제계 석탑의 모습이 다분한 석탑이 세워져 있다. 아마 윗단에도 가람의 한 영역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입구에서 대적광전이 있는 주 영역으로 진입하려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한다. 경사지를 단계적으로 이용하는 진입법과 대지조성법은 철저하게 신라적인 양상을 보인다. 금산사에서 보았던 평지성과는 대조적인 수직성이 강한 방법이다.

대적광전(보물 826호)은 크지 않은 규모지만 5×3칸의 칸살을 갖는다. 내부에도 두줄의 고주를 세워서 내부공간이 수직적이며 답답한 감을 준다. 가동 간격은 매우 좁아서 한칸에 문 2짝을 겨우 달 수 있는 크기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일반적인 불전이라면 전면 3칸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를 5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다. 따라서 전체 건물은 좁고 높은 수직적 형상을 가진다. 마치 경북의 승림사 대웅전을 축소한 것 같은 모습으로, 건물만 놓고 본다면, 영낙없는 신라계 건물이다.

그러나 귀신사를 창건했던 정치적 목적은 실패하고 말았다. 신라에 대한 이 지역의 반감이 격렬했기 때문이다. 사상적으로는 화엄신앙에 대한 미륵신앙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얼마 후에 중창된 진표율사의 금산사에 이 지역 사상계의 주도권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귀신사의 건축적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조선 후기에 중창된 대적광전에서도 수직적 구성의 신라계 흔적이 반영되었다. 이미 조성된 가람의 틀과 입지와 터에 맞추어야 했던, 어쩔 수 없이 따라야했던 결과일 것이다. 귀신사 가람의 배치법에서, 남겨진 건물의 구성원리에서 천년전의 치열했던 사회적 갈등을 읽을 수 있으니, 건축은 시대의 흔적을 간직하는 증표요, 그릇임에 분명하다.

"참회와 기도로 통일 이루자"

13개 불교단체 '남북화해 1000일 정진' 운동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10일 열린 '평화통일을 위한 불자인 1000일 정진' 연석회의.

갈등과 폭력, 증오와 대립의 20세기가 가고 화합과 조화, 창조와 상생의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발목에는 분단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으며, 이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며 새로운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힘이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분단의 철책선이 3·8선이 아닌, 동포가 굶주림으로 죽어가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무자비(無慈悲)한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한 남북한 민중간의 염원과 마음가짐이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등 7개 종교단체와 2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가 3·1절을 맞아 850km구간에 150만명이 '평화와 화해의 휴먼라인'이란 인간띠를 만드는 것도 남·북한 및 해외동포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시민단체의 이같은 통일운동이 불교계에서는 '1000일 정진'이란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새시대불교포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좋은벗들 경불련 평불협 등 무단 등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도 강화해 '기도와 통일운동의 일치'를 강조할 계획이다.

1000일 정진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각기 특성을 살려 통일관련 신행·교육·학술·통일기금모금·문화사업 등을 결합한 한편 공동발원문 작성 및 통일기원 정기법회, 한끼 굶기, 108배등 절하기, 참선, 염불 등 통일을 염원하는 발원과 수행을 결합 예정이다. 또 각 단체의 프로그램을 '100일 정진' 연대모임의 이름으로 수렴해 행정자치부 등에 프로젝트를 제출, 자금을 확보하고 통일학교 및 홈페이지 개설, 조국통일기원탑 제작, 불교방송 및 신문을 통한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은 '온겨레 손잡기 운동'에 참여한 사찰을 중심으로 '통일사찰'을 지정, '1000일 정진'에 참여토록 해 불교통일운동이 지속적·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기금모금·학술·문화 행사

조계종 '통일사찰' 지정

13개 불교단체는 10일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불자인 1000일 정진'(이하 '1000일 정진')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3월1일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참가단체들은 제안취지문을 통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북한동포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참회를 불자들이 먼저 해야 한다"며 "남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화합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불자들의 용맹정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발족식 때까지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 등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종단과 산하 단체를 비롯 각종 직장·직능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범불교적인 통일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또한 북한동포를 위한 기도와 모금사업을 결합한 천주교의 '한 마음 한 몸 운동', 원불교 사회개벽 교

인/터/뷰 양심선언자회 이문옥회장

"정치개혁도 불국토 건설"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10여년간 노력했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쇠귀에 경읽기였습니다. 낙천·낙선운동 등 시민의 힘으로 깨끗한 정치를 이루려는 노력이 불국토 건설의 시작입니다."

이문옥(61) 양심선언자회 회장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깨끗한 정치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면, 부패방지법은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인을 감시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면서 지난해 정기국회에 법안(의원 299명중 230명찬성)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공염불에 그치고 만 부패방지법 제정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중생을 사랑하기에 아무리 상대에게 불유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말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 실태를 양심선언을 통해 폭로, 감옥까지 간 정신으로 공직자들의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다.

지난 92년 양심선언자회를 결성한 후 내부고발자 보호, 돈세탁 방지, 예산부정 방지, 부정공직자의 재취업 금지 등을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 온 김 회장은 부패방지법 제정이 정치·경제분야 등 모든 개혁의 뼈대라고 강조한다. 지난 연말 정년퇴직하면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주는 녹조근정훈장을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받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불교계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 회장은 사부대중을 승가 공동체의 평등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스님들의 발상전환이 있어야만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찰재정의 투명화 등 삼보정재의 공개운영이 선행되어야 불교 개혁과 중흥이 기약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재경 기자

삼·부·농·산·은·습·기·재·해·약·초·맛·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8.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를 밝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강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 부 농 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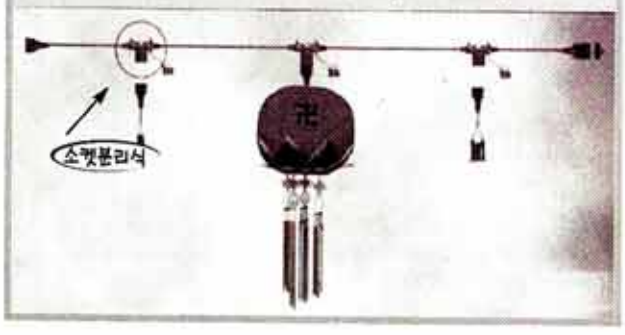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형)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시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촛불재는 물리 터지게 하는 방편



그림 · 최주현

생활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믿고 한구멍으로 들고나는 행을 하면 자기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체가 주인공 자리서 나오니 모든걸 그 자리에 되돌려 놔야 苦 벗어나 자유인 될 수 있어요

촛불재를 하는 의미는

문 스님, 저는 한마음선원에 다닌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선원에서 하는 모든 의식과 행사가 부처님의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원에서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모든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촛불재를 정성스럽게 하는데 촛불재를 하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큰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답 선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초삼일까지 새해맞이 촛불재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래 안다면 아마 전자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방편을 일러주시고 많은 설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모르니까 염불도 있어야 했고, 그 옛날 법을 다 갖추어야 했고, 지금 현재법과 예전 법이 둘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따라야 하는 것이 예의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모르면서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해서는 아니되죠.

우리가 왜 촛불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보이는 물질의 촛불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촛불재를 하는 것은 방편으로써, 마음이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 마음이 밝아 있지 않다면 밝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밝힌다는 생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촛불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다 가설이 돼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한 가정에 내 자식, 내 부모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 전체가 그렇게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도 내 마음이 밝혀지면은 그 마음도 밝혀진다는 얘깁니다. 전기 가설을 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듯이, 그것은 자연히 되어있는 마음의 가설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식이다 부모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을 밝아지게 할 뿐 아니라 현재의 내 마음도,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건도 있죠. 이 세상에 나올 때 제각기 다 혼자 나오죠? 갈 때도 혼자 가구요. 대신 가주는 사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밝히는 것도 컴컴한 두뇌를 밝히는 것도 바로 제각기 각자 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식구들이 오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음이니까 대신 하지 뭐, 혼자 대표로 하면 되지' 이러지는 마세요. 촛불재라는 것은 유위법이나 무위법에서 내가 형성되고 살아나갈 때에 컴컴했던 일을 다시금 내 깊은 마음에 의해서, 밝은 지혜 물리를 내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게 밝아 있으니 스스로 밝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재를 하는 겁니다. 들고 켜고 하는 것이 방편이라고 하지만은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된다거나 또는 본인 자신도 어쩌지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것도 다 업식으로 인한 거니까 본인이 마음의 촛불을 켜 들고서 간절히 관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본인이 부득이 못하게 되면 부모라도 대신 해주어서 그 간절한 마음의 전달로 지혜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겁니다. 각자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내가 한 것만치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태워서 어두움을 없애고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명을 밝히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항상 마음의 뿌리가 밝아지도록 발원하는 방편이자 진실한 의식인 것입니다.

원인모를 괴로움에 시달려

문 우연치 않게 큰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중인 재가자입니다. 처음에 스님 말씀을 따르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5년 전부터 저는 원인모를 괴로움에 시달려 왔습니다. 자꾸 저 아닌 제가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자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생활하면서도 이럴 때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빙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끝에 최면치료도 받아봤지만 아예 최면도 걸리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내 속에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놓는 작업을 하지만 좀 아졌다가도 또 제자리고 괴로운 생활의 반복만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마음이란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지금도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지만 스님의 말씀을 위로삼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주인공자리가 굳지 않아 남이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빙의를 자신이 쫓아내서 다스릴 수 있는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 오랫동안 괴로움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사량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요, 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즉 말하자면 상대에서 마음을 내는 것도 영이고, 내 마음 가진 것도 영이에요. 영에다 영을 넣으면 맞이 되나요. 수많은 영을 영에다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애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마음은 체가 없어서 어떠한 말을 했든지, 에너지를 뺏아간다는 느낌이 들든지 간에 내 본래의 근본은 못 뺏어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처는 절대로 뺏아가고 뺏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간혹 어떤 사람은 성모마리아가 나타났다느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느니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가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으면 마리아 모습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빨려들어서는 안되죠. 즉 말하자면 부처님을 너무 형상으로만 좋아했으니까 그렇고, 관세음보살을 형상으로만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렇고, 부모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그런 것이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은 바람과 같고 뜬 구름과 같고 꿈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러한 이유로 나오는 환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빡빡해도 안되고 너무 물렁해도 안되니까 좀 더 중도로써 중심을 잡고, 그런 게 보인다해도 '아- 나를 공부시키려고 속에서 화해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다 되놓아야만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고 본심의 뜻이 전달이 되죠. 그런 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잘했든 못했든 어떠한 게 닥쳐도 오직 서슴없이 거기에 흡수시키라는 얘깁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형상이 없는 공한 자리에 모든 거를, 즉 말하자면 공심에다 모든 거를 맡겨놓고 '너만이 그렇게 안 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맡긴다면 그대로 무효가 돼 버려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모습으로,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오직 한 군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거든지 그 한군데에 다시 놓는 작업만 한다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조상이 일 꼬이게 한다하니…

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집안의 운줄을 쥐고 있고 조상이 저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많은 조상이 제 주위를 막고 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거라고 하더군요. 1년 전에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컸습니다.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고 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약간의 제사비를 주고 제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업보가 많아서 그러니 업보만큼 돈을 바치면 빨리 그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도를 벗어났고 틀린 얘기라는 것은 알지만 쉽게 마음에서 떨쳐버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하지 못하는 조상을 얘기하며 일이 꼬인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답 여러분은 자기가 속해있는 그 생활속에서 자신의 근본을 믿는 작업을 하면서 한구멍으로 들고 나는 행을 합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행이 없으면 자기 성품을 발견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라야만이 자기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나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되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찌 딴 사람한테 미루고 바깥에서 부처님을 찾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자손들한테 "네가 저지른 거는 네가 거두어라." 하고 훈계하겠지요?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지르고 과거로부터 행하여 왔고 지금도 행하고 가는데 여러분이 해야 하지 어찌 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발부리를 채여서 피가 나도 '아이쿠' 하고 자기가 그 순간 자동적으로 자기 발을 어루만진단 말입니다.

☞ 14면으로 계속

법공양 페이지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300명 수용가능 현대식 수행법당, 요사채, 샤워실, 공양실의 쾌적한 시설과 소리산 16만평의 108토굴 수행처, 행선코스 8km(산림욕,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출세봉, 차돌암벽의 특급생수), 바람굴(더운바람, 찬바람 나오는 신비로운 수행처) 나한굴 기도처가 있는 수행전문 청정도량임.

⊙매주 철야 용맹정진 : 토요일 저녁 8시 ~ 일요일 아침 8시
※수행내용: 참선, 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정근, 108배, 도인체조건강법, 행선, 와선, 소리산등반, 수행테크닉교육 점검, 축원기도 7회

참선초기 수행자의 염불 수식관 비법 수행(처음공개)
건강 염불 감사 명상 비법공개!

⊙출가예정자, 행자 수행교육 체험 : (7일, 15일, 30일, 49일)
⊙업장소멸, 소원성취, 병고자 특별기도수행
※하루종일 쉬지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행으로 불평불만, 원망심, 탐진치 3독심을 녹이며 소원을 이루는 신심나는 기도법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홧병, 냉병, 감기몸살등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신행단체나 성지순례시 방문하시면 언제나 절대 숨차지 않고 헐덕대지 않으며 단전혈, 용천혈, 노궁혈이 열리고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는 절삼매의 비법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49재, 천도재, 물고기 방생 등의 불공을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대명스키장, 산음자연휴양림 5km)
전화 (0338)771-7745 / (011)9088-7745

2000년도
연수 ·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본 **불전국역연구원**은 국역사 양성과 불전(佛典)의 정리 및 연구 번역과 출간에 주력하여 불교중흥의 토대를 이룰 목적으로 '93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하는 비구 · 비구니 및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 2000학년도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봄 학기 개설강좌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개설강좌 교재 및 담당교수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담) 혜남스님	괄리어 기초 백도수 교수	외전연구 (논어) 권영대 교수	산스크리어문법 기초 김령 교수
		능엄경연구 혜정스님		육조단경 종범스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0년. 1. 25.(화) ~ 2. 25.(금)
나. 강의시작 : 2000년 3월 6일(월)
다. 강의시간 : 오후7시 ~ 9시
라. 접 수 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문 의 : TEL. 02)929 - 9991
FAX. 02)928-4302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천수경 · 반야심경 · 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 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순수위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선착순 300명에게는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 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황과 불재를 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 100일분을 드리겠습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8.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9. 류마티스나 관절염
10. 심장이나 방광에도 매우 좋습니다.
11. 간이 나쁜사람
12.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13.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줍니다.
14. 중풍에도 좋습니다.
15. 고혈압, 저혈압
16.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7.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8. 눈을 맑게 해 줍니다.
19. 불면증, 황달
20. 담즙 분비를 많이 해 줍니다.
21.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내 한마음 밝으면 모두가 편안해져

☞ 13면에서 계속

딴 사람이 대신 와서 아파 줄 리가 없어요. 딴 사람이 만져줄 수는 있을지언정 대신 아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활 자체를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기에 여러분 자신한테 모든 것을 되놓고 가다 보면 숙달이 되고 거기에서 미묘한 법을 발견해서 감응이 되는 것이죠. 차차 감응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성품을 발견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봐도 더 잘 알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를 않아요. 진짜로! 모두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건성이에요. 진실히 믿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나 봐요.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 신다를 떠난 그 가운데서 해결을 보는 거지, 내가 꼭 살아야겠다고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나마 진짜로 믿고 또 그렇게 100%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로 하라고 이를 뿐이지 내가 대신해 줄 순 없잖아요. 죽고 사는 걸.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다 하더라도, 죽든 살든 그걸 떠나야 돼요.

하여튼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점검해 보면 알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왜 나는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고 방황하면서 남의 이야기에나 끄달리는가를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말들을 듣게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튼튼하게 이끌고 갈 수 있잖아' 하고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중심이 선 자신을 통해서 가족을 돕는 일도 조상을 건지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문 스님, 전 어떡해야 할까요? 저는 나 자신이 싫어요. 너무나. 내가 처한 상황, 내 성격, 내 외모, 나의 무능함, 이 모든 것이 다 싫어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하루 빨리 이번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하고. 현재의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계속 바라고만 있고, 자신이 한심하고 짜증스럽기만 해요. 해둔 것도 없이 나이만 먹어버린 지금 자신감있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럽기만 하네요. 나도 더 젊다면, 더 능력있고 똑똑하다면, 이런 생각만 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는 지금 괴롭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밖으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산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일은, 내달에는, 내년에는…하면서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고 또 이미 지나간 것을 안타까워하죠. 어떨 때는 내일과 저 산너머에 희망을 거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된 현실을 살아나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만, 그 희망은 존재하지도 않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저께에서 볼 때는 내일로 불리었는데, 내일이라고 기대했던 오늘 얼마만큼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내일이었던 오늘을 생각지 않고 또 다시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과 저 언덕너머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신비스런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봄을 찾던 시인이 자기 집에서 그것을 만났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먼 내일이 아니고 저 멀리 언덕너머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 각자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 진리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가 자기 근본 주인공 자리에서 나왔으니 다시 그 자리에 되 맡겨 놓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이 참된 공덕인 것입니다. 일체를 믿고 맡겨놓음으로써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본은 곧 부처이자 진리입니다. 근본은 생사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생사를 짓고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본래의 마음자리에 되돌려놓기만 한다면 스스로 고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기에 나는 항상 누구를 보던지 그 자리에 믿고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뇌망상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되 맡겨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방하착한다면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이니 그런 믿음으로 일체 경계를 놓아가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이를 심하게 다뤄요

문 스님, 중학교 1학년인 제 큰아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올릴까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지내다가도 느닷없이 남편이 아이의 책가방 검사를 하기도 하고, 공책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며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아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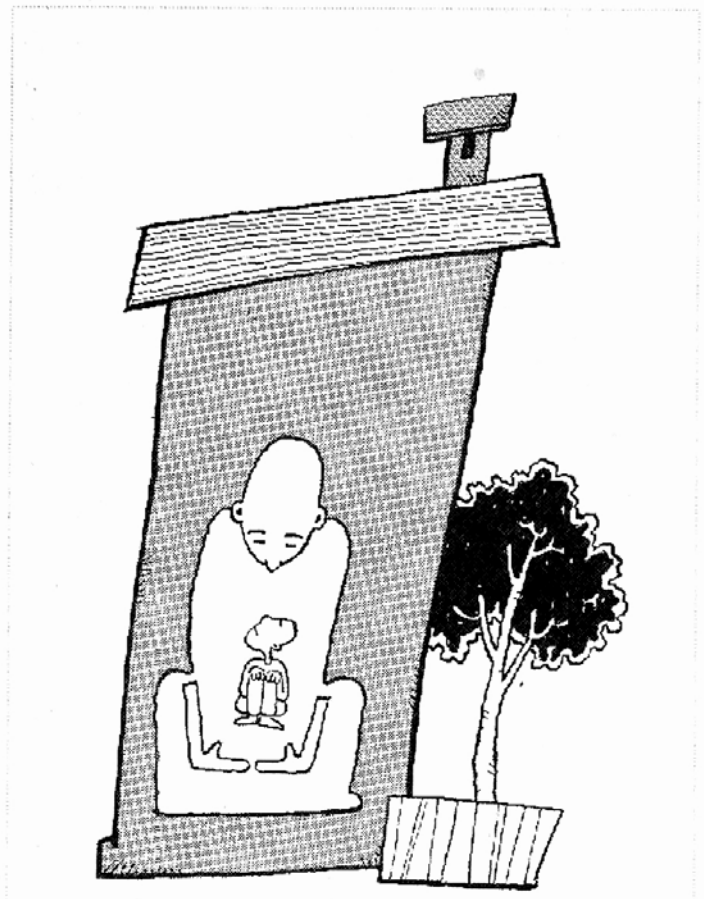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리는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있어요

몸·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맡기고 관해야

저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남편이 안타까와 몇 마디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아빠로서의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에게 충고하지도 못합니다. 아이가 이제는 사춘기인데 더욱 걱정이 됩니다. 마음은 내고 있습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진실로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생각을 냄으로써 남을 진정으로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주인공에 모든 것을 믿고 놓는 것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남에게도 마음으로써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한테 이익을 주려면 지혜로워야 되겠죠. 남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 말을 전해서 좋을까, 나쁠까를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남한테 이익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망할 놈이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칭찬을 하더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욕한 사람도 자기는 욕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참회를 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도 천차만별이죠. 거짓말도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착을 두고 살지 마세요. 착을 두면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참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을 두지 않아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오래 살고 늙었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의하고 기준에 의해서 애들을 나무라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도 무엇인지 알고 정말 뜨거운 사랑을 자식들도 알 수 있고 부모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진짜 사랑을 하려거든 놔줘라. 부부지간에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놔줘라. 붙들고 있는 게 사랑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죠. 여러분이 살면서 상대방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아, 모자라는 것도 봐야 내가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그것도 내 스승이다.' 하신다면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보고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법도 예전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빗나간다 해도 결코 입으로, 몸으로, 물질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마음에 맡기고 관(觀)하다 보면 서로 통하게 마련입니다. 이쪽에서 전화번호를 돌리면 저쪽에 신호가 올리는 것처럼 마음의 진실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요, 이 시대의 불법인 것입니다.

뇌성마비 딸 누워서만 지내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32살의 주부입니다. 3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예쁜 딸이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뇌 기형에 의한 뇌성마비라는 판정을 받고 지금은 28개월이 되었지만 누워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지능이 없는 상태여서 엄마도 알아보지 못하고 물론 말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라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큰스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어떤 마음을 내야할 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답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다 같은 인연끼리 만난다구요. 즉 말하자면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같은 인연, 또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같은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하고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러니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일체 모든 것이 직결이 되어있고, 이 우주 천하에 직결되어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직결되어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그 병도 거기에서 나온 거니까, 나온 그 자리에 다시 맡겨 놓을 때에 고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치게끔 맡기라는 말이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가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땅을 짚고 일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넘어져주고 누가 일으켜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본인들이 풀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려요. 그러면은 그 마음, 인과응보를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죠.

천도재에 밥·반찬 안 놓는 건 먹고 입고 거주하며 살던 습을 모두 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저지른 일이 많은 그러한 인과응보가 다 그 자리에선 스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뚱이 속에, 대뇌 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공급을 해주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곧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천궁행하는 데에 노력을 해서 체험을 하고, 체험하면서 진실하게 믿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일체만법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하고 진실로 믿고 관해 나간다면 얻는 바 없이 얻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쉬움이 있고 어떤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못 배웠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병자였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의 내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어느 신도님이 왔는데 지금 말하는 아이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뿐만 아니라 외삼촌이 진실히 믿고, 그대로 실천을 해나가는데 그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 이제 다 나아서 아주 훌륭한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 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살 수 있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도리를 깨우쳐서 살아나간다면 그 가정은 물론 가족들 모두 다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방안에 불 하나만 켜도 모두 다 밝게 살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한마음이 밝으면 모두의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는 이론으로만 흘러서는 안되고 오로지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괴로워만 하지말고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나온 그 자리에 일체를 맡기면서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집에서 지내려면…

문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우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 속의 현상들이 조상님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예를 든다면 취직을 했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인이 되신 할머니를 위하여 조상불공 또는 불교식의 제사를 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곤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정성껏 올리고자 하는데 준비물, 마음가짐, 의식 및 절차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나는 신도님들한테 제사(祭祀)를 지낼 때 거추장스럽게 준비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지 말고 간편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또 절에서도 천도를 시키고 재사(齋祀)를 지낼 때 간편하게 하라고 항상 이릅니다. 위패를 모시고 초, 향, 청수, 우주떡(선원에서는 우주를 상징하는 의미로 둥그런 떡을 올림), 세 가지 과일를 올리고 지내게 합니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꽃 한 다발을 정성스레 준비해놓고 그 꽃 앞에 위패를 세우기도 하구요. 그리고 재사를 지낼 때는 언제나 재사상 옆에 큰 그릇에 물 한 그릇을 떠놓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 몸속의 의식들, 즉 말하자면 의식에서 오는 집착이나 관습, 욕심, 이런 거를 다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재사를 지내라고 일러드리면 어떤 분들은 재사를 지내는데 왜 음식이나 밥을 안 올리고 지내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주 떡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하나에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있는 떡입니다.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가 그 현실 한 떡에 다 들어있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님네들이 그냥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올려놓고 재사 음식을 많이 차려놓은 들 앞에 살던 습이 녹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살면서 먹고 입고 몸뚱이를 아끼고 또 집을 원하고 하던 것이 다 그냥 합쳐져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이 착이 붙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데서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며 그 모든 것이 다 멸하게 하는 겁니다. 안팎에서 지내주는 거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자손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 자손들을 통해서 조상들도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시덥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주위에서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체가 있는 데에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공부를 해서 벗어나면 12대 종손까지 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나는 데는 조상뿐만이 아니라 수억겁을 주인공에 넣는다해도,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천도가 돼서 나가도 나가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한 번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때를 생각한다면 그 인연이 천년에 한 번씩 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생을 이런 공부를 해서 세세생생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큰 홍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극한 마음으로 주인공에 관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암, 간경화 완치 보장
http://www.no3medical.co.kr
전이된암, 만성신장병
성인병, 원인모를병
치료후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일천만원) 드립니다.
032)3478-119~8/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B/D 405호
의 단 원

강좌

남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관 달 마 사 포 교 원
달마 스님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가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4
청운역리학원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02)481-4482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구인구직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비구니사찰)
신심이 돈독하고 건강하며 오래도록 함께 지내실 분, 65세 미만
안흥사(안양)
0343)473-6029
0343)444-9800
FAX 0343-473-3993

신심있는 불자로서 공양주하며 평생 같이 사실 분 모십니다.
보시금 드림
011)803-9130

공양주 보살 (급) 구함
나 이:
50대 초반~60대 초반
053)743-7070

재혼을 원합니다
■ 성별 : 남
■ 나이 : 45세
■ 학력 : 대졸
■ 직업 : 상업
30세에서 40세사이
여성분을 기다립니다.
011)308-5523

불심깊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양주 보살 하실 분
모십니다
(40~50대)
목포 011)665-7037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교사구함
유치원 청소 하실 분 구함
보현정사, 코끼리 유치원
0344)978-0997(8)

한방건강원
(시설완비)
같이 동업하실 분 구함
(약재에 밝으신 분 환영)
02)2299-6090
02)2296-6062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생명에너지 위에서 상쾌한 아침을
◆초정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해줍니다.
◆한달전기료는 15,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49만원(Q)부터 : 한정판매
氣 리빙스톤(옥스톤) 구입 · A/S : 02)424-9427
서울 송파구 잠전동 94-9 직영점 : 0333)618-7773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차 소탁차
일엽차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염불 수행의 비법
· 불교 세계관의 결정체
·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 창조적인 염불수행
· 연락하시면 염불 수행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361)254-5397

건강에의 신비!
준천 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공업 서울 玉山家 (02)-777-0105

군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 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 :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책 없이도 손만 펴서 중생의 운명을 인도하는 인생비법을 전수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뜻깊은 이 학문은 득도한 스님들이 잘 쓰는 역학입니다.
⊙조상의 길 · 흉과 연 관계를 알아내는 이 비법은 부처님 氣가 임하신 분은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
011)695-2320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전철역)서 10분거리
◆부지 : 5,000평
◆건물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미륵불, 종각
◆가액 : 13억 8천만원
◆특징 : 천연약수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납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임법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
◆ 건물만 20평
◆ 이주관계로 급
◆ 가액 : 절충
019)408-5264

사찰 안내
◇위 치 : 경기
◇법 당 : 25평
◇지장전 : 20평
◇요 사 : 33평
◇부 지 : 740평
◇가 액 : 4억 3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상담후 결정
02)2618-0767

토굴(급) 안내
◆위치 : 경북고령 (대구에서 30분거리)
◆평수 5천 8백평
◆건물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동(각 30평씩), 공양실 12평, 납골당, 부도 적지 경관 수려
◆가액 : 답사후 절충
0543)954-0391
011)501-2219

사찰 (급)안내
◆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지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토굴(급) 안내
◆위치 : 경북고령 (대구에서 30분거리)
◆평수 5천 8백평
◆건물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동(각 30평씩), 공양실 12평, 납골당, 부도 적지 경관 수려
◆가액 : 답사후 절충
0543)954-0391
011)501-2219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 특징 : 3층건물의 도심사찰로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포교하기에 최적지이며 사정상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양도코져 합니다.
◆ 가액 : 4억
서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의성읍 소재
◆ 대지 : 800평
◆ 법당 30평, 요사채 2동 60평
◆ 10년 경험의 사찰 중개 전문업소입니다.
◆ 사찰, 포교당 양도 ·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 가액 : 1억 5천만원
서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 이상)
◆ 법당 28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55평, 삼성각, 창고, 주차장, 시설일체 A급
◆ 특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교통 편리,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3천(절충가능)
0547)436-5036

토굴(급) 안내
◆위치: 충남 청양군
◆층면적: 1,070평, 종교부지로 임자로 등록
◆대지: 124평, 나머지는 준농림지로 무공해 밭과 논농사 가능
◆실건평: 21평(온돌방2, 보일러방1, 부엌, 아궁이 및 창고)
◆특징: 순수 100% 황토방, 남향, 인적이 드문 청정지역
◆가격: 7,800만원(실비)
011)9545-1903/012)1551-1901
용맹정진하실 스님이나, 요양을 요하실 분에게 양도함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신광면 우각1리 38번지 감로사
◆ 대지 1,200평
◆ 법당 18평,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대웅전 18평
◆ 가액 : 5억
0562)243-793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내에서 7분거리
◆ 시설 : 법당 20평, 요사채 70평, 대지 200평
◆ 가액 : 8,000만원
0557)644-5679
017)590-1900

황토방 안내
◆ 황토방 2칸
-> 1칸당 2천만원
◆ 위치: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902번지
※수행 높으신 노스님 구합니다.
011)8039-4862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4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대단위 Apt 인접지역내
◆ 대지 : 150평
◆ 건물 : 3층 법당 40평 2층 요사 50평, 1층 요사 50평 지하창고 10평, 합계 - 150평
◆ 가액 : 4억 8천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 양도 · 양수하실 분 구합니다.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절골) 무주 구천동 인근
◆ 부지 : 약30만평
◆ 가액 : 상담 후 절충
◆ 특징 : 이조 초기 절터임. 덕유산 줄기 시수, 천연 고로쇠 나무, 자작 나무, 잣 나무 등 경관수려, 현재 사슴 농장으로 운영중
(주,야) 0598)942-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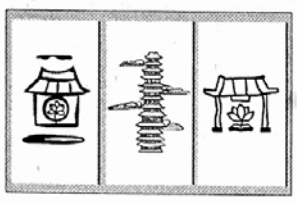
사찰 안내
◆위치 :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60번지(서당마을)
◆평수 : 1,560평 중에 대지 200평(스레이트 주택 1동, 전기 · 전화, 상수도 有)
◆특징 : 산성산 밑에 있고 지목은 밭이며, 풍수지리상 묘터가 좋다고 하며, 이조시대에 인근에 고찰이 있었던 곳임. 현재 가옥 1동과 십삼년생 두충나무 약 4천그루가 있음. 차량출입가능.
◆ 가액 : 약 2억
053)427-3084(야간가능)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함안 가야읍에서 택시타고 5분거리)
◆ 평수 : 777평
◆ 건물 : 64평 1동
◆ 사찰명 : 천거사
◆ 가액 : 3억
0552)582-2220

토굴 안내
◆ 위치 : 김천역에서 10분거리 국도변에서는 2~3분거리
◆ 전답 1,800평, 적벽돌과 기와집으로 28평짜리 집이 有
◆ 방 2, 거실, 법당 1(大), 목욕탕, 주방,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7천만원
◆ 산 45,000평(평당 3천원)
011)465-1017/0431)26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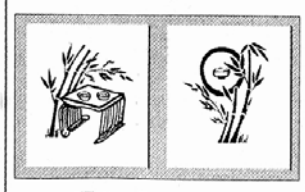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천혜의 명당 사찰 "터"
◆ 도심에 위치, 대단위 주거지 인접
◆ 임산 배수의 형(한강조망) ◆ 사회·복지시설 용도 최적
◆ 위치 : 동작구 흑석동
◆ 면적 : 377평(주거지역 대지)
◆ 평당/1,700,000원 정도(시세의 절반 가격)
◆ 융자 알선(2억 정도) ◆ 신심있는 불자 소유
현지답사 안내: 011-236-6918(소유자),
017-324-8689

기도포



기장 84cm×폭 38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신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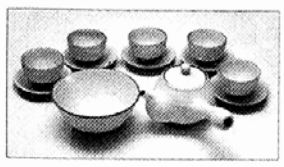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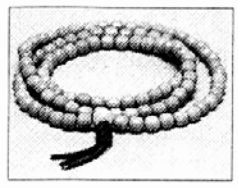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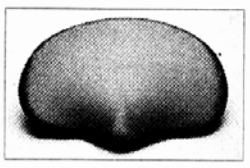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체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실용신안:1998 025009
의장등록:41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옥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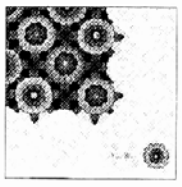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톤)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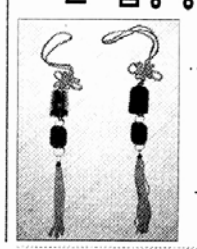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시 대용전 장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향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권지매수 20장
· 규 격 148cm X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이 길긴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오랜세월이 돼도 변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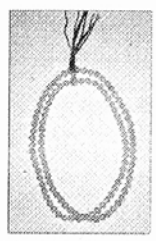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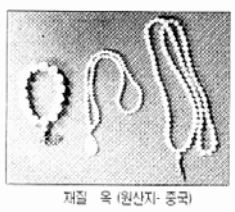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금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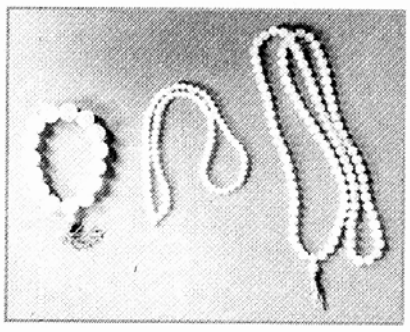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염주(念珠)



수주(數珠) · 송주(誦珠) · 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 일정한 수의 작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원을 만든 것을 말 하는데 보통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고, 기원할 때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염주를 헤아린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구의 하나인 염주는 원래 보리수 열매를 잘 골라 108개를 꿰어 둥글게 만들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고귀한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염주의 재료를 보면 다라니경에는 금 · 은 · 구리 · 수정, 목환자 · 보리자 · 연화자 등이 있고,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는 놋쇠 · 구리 · 수정 · 진주 · 연화자 · 금강자 · 보리자,향나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08염주가 가장 많으며 그 재료로는 보리자 · 목환자 · 율무 · 금강자 · 수정 · 산호 · 향나무 등으로 만들고 있고 염주알의 수에 따라 108개로 한 것은 108번뇌를 참회하고 끊음을 표현한 것이며 절반인 54개로한 것은 보살 수행의 계위(階位)인 4선근,10신,10주,10행,10회향,10지를 의미하며 그 절반인 27개로 된 것은 소승의 27현성을 표시하는 것이라 한다. 단주,108주,1080주,3000주 이외에도 염주알의 수,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염주와 현대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모양의 염주들이 제작되고 있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언제,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불교인의 수행,생활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생광석백팔염주 35000
- 백옥백팔염주(대) 40000
- 청옥백팔염주(대) 40000
- 백옥백팔염주(소) 30000
- 청옥백팔염주(소) 30000
- 염주열쇠고리세트(낱개 3개) 9000
- 전단향백팔염주 8mm 16000
- 천은사보리수백팔염주(소) 40300
- 주목백팔염주 10mm 14000
- 모감백팔염주 24000
- 보리수납작백팔염주(중) 30000
- 흑단백팔염주 10mm 16000
- 집대추백팔염주 10mm 7000
- 월성백팔염주 8mm 10000
- 대추백팔염주10mm 4400
- 향소원백팔염주 10mm 4000
- 향백팔염주 10mm 2400
- 야광백팔염주 8mm 2200
- 인조호박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자만옥 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취만옥백팔염주 8mm 2000
- 아이보리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밤색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벽조목백팔염주 10mm 40000
- 수암옥염주세트 98000
- 어린이백팔염주세트(낱개4개) 4000
- 연밥백팔염주 24000
- 금강주염주세트 30000
- 도실백팔염주(일반) 24000
- 도실백팔염주(특) 40000
- 마노백팔염주 8mm 40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 12mm 24000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
- 수정컷팅백팔염주 8mm 90000
- 자수정마노백팔염주 8mm 70000
- 호안석백팔염주 8mm 50000
- 생광석단주 10000
- 벽조목단주(소) 18000
- 연밥단주 5000
- 금강단주(노랑) 9000
- 금강단주(특대) 11000
- 금강무가공단주 9000
- 대추연꽃단주 30mm 20000
- 도실단주(일반) 6000
- 도실단주(특) 10000
- 모감단주 5000
- 목탁단주 7000
- 보리수단주 9000
- 사진단주 25mm 46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12mm 24000
- 월성단주 12mm 7000
- 주목단주 24mm 16000
- 태양주단주 6000
- 향단주 23mm 4400
- 향달마단주 30mm 5000
- 향반야심경단주(일반) 7000
- 향부적단주 30mm 5000
- 향소원단주 30mm 5000
- 흑단단주 15mm 6000
- 주목단주 20mm 14000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오색잎),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겸부)
가격:₩148,0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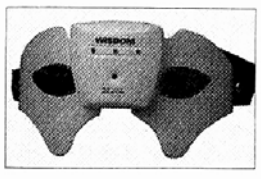
가격: ₩9,5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끌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불자 세상보기

버려진 아이들 엄마 기다리다 울며 잠든다

요보호아동 1만명…매년 증가



◇IMF이후 버려진 아이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IMF가 끝났다는 요즘도 놀이방이나 보육원 등에 아이를 버리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기다림'은 눈물겨운 일상이다. 부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혜명보육원의 아이들.

보미(10·가명)·보영(8) 두 자매는 오늘도 온종일 창밖을 내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 어둠이 내려도 시선은 텅빈 창문밖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새 굵은 눈물이 한 두 방울 떨어지고 두 자매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낀다. "엄마, 아빠 왜 안와"

IMF가 막 시작된 97년 겨울, 불교계 보육원인 서울 구로 혜명보육원에 버려진 두 자매는 설이 지나면서 부쩍 우울해졌다. 4년째 목소리도 듣지 못한 엄마, 아빠. 그래도 평상시엔 견딜만했는데, 일년에 한 두 번인 명절 때만이라도 부모를 따라 잠시 이곳을 떠나는 또래들을 보고는 더욱 엄마, 아빠가 그리워졌다. 설날 아침에는 두 자매가 옷장에서 몰래 부둥켜안고 울며 엄마 아빠를 더욱 애타게 찾아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진석(9·가명)이는 며칠 전부터 베란다에서 턱을 괸 채 마당만 쳐다보고 있다. 설 때 엄마, 아빠를 따라 집에 다녀 온 뒤로 엄마, 아빠가 또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항상 엄마랑 아빠랑 살았으면 좋겠는데…' 진석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버려진 아이들. 이곳에는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원생 73명중 40명을 넘는다. 금방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은 엄마,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들. IMF 2년의 그늘을 지난 요즘에도 이런 아이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곳은 비단 혜명보육원뿐만 아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경기 구리 솔지놀이방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지의 각 보육원과 놀이방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버려지거나 미아가 된 어린이(요보호 아동)들은 97년만 해도 연간 6천명을 넘지 않았으나 본격적으로 IMF 한파가 시작된 98년과 99년에는 1만명선에 육박했다. 이중 반 수 정도는 미혼모의 아기 등 양육포기 신생아가 포함돼 있다.

보육원이나 놀이방에 맡겨진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이나 별거, 가출함으로써 고아아닌 고아가 된다. 맡겨졌다고는 하지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니 버려졌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

버려진 아이들 가운데에는 많은 수가 만성 설사로 인한 체중감소와 머리가 한움큼씩 빠지는 피부 질환을 겪는다. 애정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성장 후 어느 집단에도 적응치 못하는 반사회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혜명보육원 고영화 보육사(46)는 "결국엔 문제 있는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육방예경〉에 "부모는 자식을 돌보는데 있어서 다섯 가지를 행해야 한다. 악을 떠나 선에 나아가도록 함이요, 글을 가르침이요, 가르침과 계율을 받들게 함이요, 일찍 아내를 얻게 함이요, 수시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물론 이혼한 가정이라도 자녀보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유지토록 하고, 십대 미혼모 발생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시론

교육과 매

우리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교편(敎鞭)이라 하고,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편달(鞭撻)이라고 한다. 이 말에는 모두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스님들은 마음이 해이해질 때 죽비로 어깨를 쳤다. 소리는 크지만 아프지는 않아서 규율을 어기거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도구로 널리 이용되었다. 이것도 일종의 채찍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매(채찍)와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 '매 끝에 정든다' '매 끝에 효자 난다' '미운 자식 밥 한 술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속담도 그래서 생겨났다.



김 종 상
〈서울 유석초등학교 교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채찍이 교단에서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학생들의 인격과 인권 수호라는 미명으로 체벌을 금지한다는 엄명을 내리고 신고 전화까지 개설했으며, 학부모 교육도 강화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교육하고 선도해야 할 대상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학습 태도가 나쁘다고 꾸중만 해도 집에 전화를 걸고 행실이 나쁘다고 머리에 알밤만 줘도 신고를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교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학생 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교사는 학생을 올바른 인격체로 키울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불가피한 체벌은 정당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교육현장을 생각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해 밀어붙이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20여 년 전에 교육의 민주화니 학생의 인권이니 하여 교복도 없애고 두발도 자율화시켰다. 일부에서는 제복이 갖는 통제력이나 학교전통이며 동문간의 일체감 등 긍정적인 면을 말했지만 힘있는 사람들이 군국주의 잔재, 계층간의 갈등, 심지어는 국민화합의 걸림돌 운운하며 교복을 없애고 두발까지 자율화시켰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염려했던 대로였다. 학생들의 비행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유흥업소를 출입해도 지도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다시 교복을 입히기 시작했다.

체벌을 금지한 후에 교권은 상실되고 교실은 무너지고 있으며 교육은 황폐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회초리로 맞았다고 수업시간에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아이들 앞에서 교사는 그저 패배자에 불과하고,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사직은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그래도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각 학교는 궁여지책으로 교칙으로 체벌 규정을 정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자경심(自警心)을 일깨우는 수단으로 죽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방법 찾기에 부심해 왔다. 물론 체벌을 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요즘의 가정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마저 일정한 규칙을 지키게 하지 못한다면, 어찌 남을 생각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인으로 키울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 속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학생체벌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교사의 자질과 양심에 맡겨두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분명 교단과 교권에 하나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울고 있는 교단을 한 개의 작은 버팀목으로 지탱하기에는 힘겹다. 말썽 많은 학생을 체벌했을 때 그것이 교육적인 애정으로 한 사랑의 매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때린 폭행이냐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교사가 자신의 교육관과 신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신성불가침의 절대권으로 승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교사들도 신념과 자긍심으로 교육현장을 지킬 수 있다.

그래도 따뜻한 사회

백혈병 환자에 혈소판 폐지모아 불우이웃 장학금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의 공덕으로 여긴다. 보시 중에는 때를 맞춰 베푸는 보시도 있고, 필요한 것을 베푸는 보시도 있으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푸는 보시도 있다. 이런 보시를 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백혈병 환자에게 '생명수'와 같은 혈소판을 나눠주어 귀감이 되고 있는 두 젊은이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다. 똑같이 20세인 김지현·이효진씨. 김씨는 97년부터 1~2주에 한번 꼴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혈소판을 제공해 왔다. "90분만 참으면 한 사람의 값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이들의 신념은 마치 "때를 맞추어 지혜롭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서는 기쁨을 누리고…"라는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듯하다.

지난 7일에는 경비와 청소 등을 하는 경희대 기능직 근로자 101명이 2년동안 폐지를 모아 만든 1520여만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아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더욱이 "설사 백천번 기도하고 모든 외도에게 공양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베푼 공덕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며,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푼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부처님 말씀을 되새겨보면, 폐지를 수집해 행한 이들의 보시는 더욱 값지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자원봉사 동아리 '포비'(F.O.B.Y) 회원 12명은 설 연휴에도 학교 인근 중·고생들과 함께 '버스 도우미' 봉사활동을 했다. 버스에 올라 종점에서 종점까지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무거운 짐을 든 이들을 도와 안전하게 버스에 오르고 내리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들의 봉사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신들만 봉사활동의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할 때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공덕을 위해서 해야 하며, 보시 바라밀을 가지고 나머지 다섯 가지 바라밀도 모두 이루어지길 서원해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일 한 40대 회사원은 신원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대부터 불우학생들을 돕겠다고 세웠던 자신의 서원대로 경남도에 12억원의 장학금을 내놓았다.

"보시할 때 후세에 다리(橋)가 되겠다고 서원하라"는 부처님 말씀대로 서원시(誓願施)를 그대로 행한 회사원. 세상은 그래서 '살만한 곳'인가 보다.

'한국병' 시민의 힘으로 바꿔

시내버스-화장실 바로세우기 운동

대충대충주의나 연고주의 등 우리 사회에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질병들이 수두룩하다. 그 중에서도 준법정신과 공중도덕 부재에서 비롯된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불결한 화장실은 우리 사회 몸전체에 퍼져 있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것들이다.

최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운동과 화장실 문화 바로잡기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달 말 인터넷에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신의 난폭운전 경험과 반성을 매일 일기형식으로 적는 한편, "불법운행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말자"면서 버스가 불법운행할 경우 신고요령을 소개까지 해 놓았다. 그는 "난폭운전이나 업주의 부도덕성 등에 대해 더이상 관용을 베푸는 것은 방관"이라며 "주인인 시민 스스로 권리를 찾자"고 호소하고 있다.

'화장실 문화 바로 세우기'에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구시도 이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불량 공공화장실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한데 이어 7일에는 4800여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하는 등 '신(新)화장실 문화'를 뿌리내리겠다는 태세다.

다음의 인터넷사이트나 전화를 적극 이용해도 좋다. 고질적인 '한국병', 시민의 힘으로, 불자의 힘으로 바꿔보자.

△시내버스 바로 세우기 홈페이지(www.members.tripod.co.kr/ramon)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0331-226-7001/www.toilet.or.kr), 화장실문화시민연대(02-3707-9776/www.restroom.or.kr)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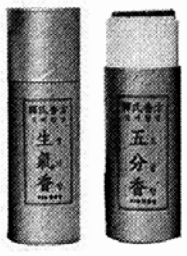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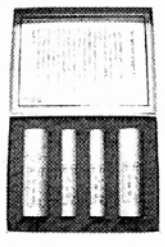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제 동안 기쁜 마음이 자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빙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꽂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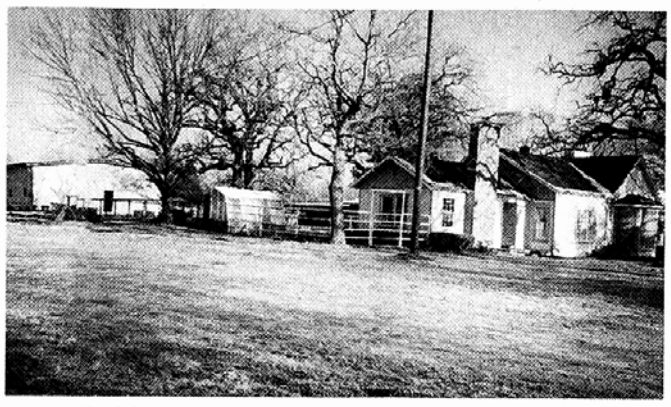
수덕사 미주분원 달라스 태광사 개원

한국禪 미포교 거점 기대

21세기 인류 정신문명의 대안으로 선(禪)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 시대적인 흐름속에서, 경허-만공으로 맥을 잇고 있는 정통 한국 선불교가 미 대륙에 상륙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의 첫 해외 분원인 달라스 선센터 태광사(太光寺)가 지난 1월30일 개원한 것. 수덕사 수좌이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을 역임한 설정스님을 회주로 한국 교민을 비롯해 미국인들에게 한국 선의 진수를 전파하는 도량이 선 것이다. 이날 개원법회 부터 현지 불자들은 기대감으로 가득찼다. 달라스에 10년만에 보기드문 함박눈이 쏟아진데다, 미국 법회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중진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장엄한 법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선광스님(개심사 주지)과 월룡, 정안(청룡사 주지) 해찬(문수사 주지) 수공(송암사회주) 수범(안국선원 주지) 법종(송암사 주지)스님 주경스님(부석사 주지) 등 10여명의 한국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염불하고 축원했다.

드넓은 블랙랜드 평원으로 광활한 미 대륙을 실감케하는 달라스. 통칭 'Big D'라고 불리는 미국 남서쪽 금융 재정의 중심지인 달라스의 심장부 다운타운에서 약 30분 거리의 파머스로드에 위치한 태광사는 1만8천여평의 대지에 70평의 법당과 50평의 요사채가 들어서 있다.

설정스님은 치병차 미국에 온 인연이 1년도 안돼 절 불사를 하게 된 것이다. 절 불사는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듯, 태광사 불사는 귀한 인연들로 4개월 여 만에 완성됐다. 뉴욕과 필라델피아 신도들을 중심으로 현지 불자들이 정법을 만날 수 있는 도량을 세우자고 마련한 시주금에다 덕숭총림 차원에서 법당에 봉안된 불상과 후불탱화 신중탱화와 불사금이 답지했고, 설정스님 개인 약값까지도 보태졌다.



◇美 달라스 태광사 전경. 신축한 법당(왼쪽건물)과 요사채를 갖췄다.

대지 1만8천평…법당·요사 갖춰

현지 교민불자들 1백50여명이 참석한 개원법회는 1시간여 봉불 점안의식에 이어 1시간 여 법당 낙성식으로 진행됐다.

재미 한국불교계를 대표해 축사를 한 뉴욕사암연합회장 휘광스님(불광선원 주지)은 "미국 중남부에서 큰스님들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태광사 개원은 미국 내 한국 불교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사 개원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스님이 상주하는 사찰이 처음으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명실상부한 수행과 포교의 거점이 확보됐다는 것과, 둘째는 한국 중진스님이 회주로 그 회상에서 깨달음의 한국선 불교를 익히고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달라스는 5만명 교민사회에 100여개에 달하는 교회 십자가 속에서 사찰은 모두 신도들이운영하는 보현사, 관음사, 금강선원이 전부였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인 터 뷰

"명실상부한 선도량 육성"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모든 것이 인연법입니다. 수덕사 수좌이시고 한국불교계의 중진이신 설정스님이 건강 때문이었지만, 틀림없이 미국에 와야했던 시절인연이 있었던 것이며 마침내 태광사 회주로서 그 회상에서 정법이 퍼져나갈 것으로 봅니다."

덕숭총림 첫 해외분원인 달라스 선센터 태광사 낙성법회에 총림을 대표해 참석한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은 직접 부처님 점안의식도 집전했다.

"태광사 주지 정범스님은 내 외전을 고루 갖춘 출중한 인재로 젊고 패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경험은 30년 가까이 달라스에 살면서 신행생활을 하고 포교활동을 해온 석지연보살이 기획실장으로 역할할 것이고 또 신도들의 신심으로 충족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태광사가 달라스 선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선을 강의하고 수련하는 도량으로 면모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美불자 깨달음 욕구 부응"



태광사 회주 설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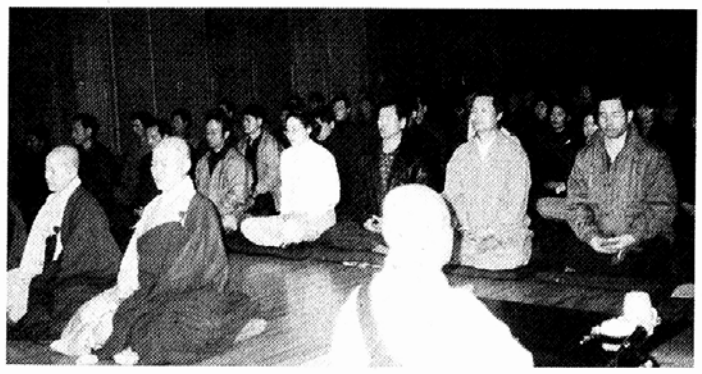
"98년 11월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12대 마지막 증회를 마치고 홀연히 미국으로 떠나왔습니다. 사부대중에게 아프다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수행자로서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모든 반연을 끊고 홀로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오로지 목숨을 다해 정진해야겠다는 원뿐입니다."

큰 수술의 결과도 좋았지만, 미국 불자들의 참 모습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이 스님에게는 더욱 값진 결실이었다. 깨달음에 대한 갈망은 크지만, 바르게 일깨워주는 인연처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뉴욕에서 또 휴스턴 병상에서 나도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담당의사와 시작한 불교 공부와 수행이 다른 의사들 그들과 인연지은 변호사 물리학 박사 교수 등으로 확대돼 팀이 결성된 것입니다."

스님은 절대 자유 평등의 안심입명의 경지에 도달하는 한국 선의 진수를 펴겠다고 밝혔다.



◇동안거 결제일에 맞춰 시작한 한마음선원의 토요좌선법회에 동참한 5백여명의 불자들이 법당안을 가득 채웠다.

"주장자는 스스로 만드는것" 깨달음 향해 정진…정진…

한마음선원 동안거 법회 5백여 대중 주말 가부좌

"깨달음은 불보살님께서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꽃이 피도록 비가 내리지만, 비가 꽃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불성이 있지만 닦지 않으면 허깨비입니다. 주장자는 스스로 만들어서 쥐고 가는 것입니다. 허리를 쭉 펴시고 눈은 코끝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이어 죽비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퍼지자 숨소리조차 멎었다. 활줄을 힘껏 당긴 듯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돈다. 나와 표적의 흑점만이 존재할 뿐이다.

12일 저녁 7시, 안양 한마음선원 3층 법당 안을 가득 메운 5백여명의 채가수행자들. 매주 토요일이면 열리는 동안거 좌선법회(지도법사 혜량). 지난 해 11월 20일 스님들의 동안거 입재에 맞춰 재가불자들도 수행의 고삐를 쥐었다. 안거에 든 스님들처럼 매일 수행에 전념하지는 못하지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법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지난 해 12월 31일과 1월 13일에는 새해와 성도절을 맞아 철야정진을 했다.

애초 토요좌선법회는 한마음선원의 거사모임인 법형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게시판에 좌선법회가 있음을 알리고 처음 열리는 법회에 4백여명이 모였다. 좌선법회를 제안했던 유선재 법형제회 기획부장은 "재가불자로서 수행하시는 스님들과 한마음으로써 안거기간 동안에는 좀 더 깨어있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수행에 남녀와 노소의 구별이 없고, 수행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요좌선법회에는 안양 한마음선원의 모든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 한다. 50분 좌선, 108배, 다시 50분 좌선, 중간에 주지스님인 혜원스님의 짧은 법문, 담선시간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혜원스님은 지금 이 자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늘 당부한다. "바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좌선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화장실 가서 잠깐 한생각 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도들에게는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습(習)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좌선을 하다 문득 '남편이 나의 거울이구나' '남편을 통해 나를 관(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의 거울이라는 자생화두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면 밖으로 끄달리던 마음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욱 정진하세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선 자기라는 짐을 자꾸 내려놓아야 합니다." 토요좌선법회는 19일 동안거 해제에 맞춰 회향한다. 이후에는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청소년탐신

서불청 회장 이취임식

서울불교청년회(이하 서울청)는 18일 오후7시30분 조계사내 불교회관에서 재14대회장 이·취임식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의 법문과 김익석 신임회장의 새해 운영 계획발표, 역대 회원들의 상견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만해백일장 참가자 모집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안호)는 3월1일 오전10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제21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참가대상은 초·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 등 4개부문이며 참가자는 시와 산문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시상은 만해대상(문화부장관상)을 비롯 각부문별로 장원 및 우수상을 선정해 각각 시상한다. 참가신청 마감은 29일까지. (02)738-3385

제주 연합합창단 발족

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지부장 조명철)는 8일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청소년연합합창단 창단 기념 공연을 갖었다. 이번에 발족한 합창단은 제주 대기고 홍영희교사가 지휘를 맡았으며 제주여고, 한림공고 등 제주지역 고등학생 52명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진로상담 캠프

파라미타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1월28일~30일까지 2박3일간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청소년 진로상담캠프'를 개최했다.

진선여중고 16일 졸업식

진각종 종립학교 진선여중은 16일 오전 9시30분 회당기념관에서 졸업식을 거행한다. 진선여고도 같은날 오전 11시에 졸업식을 갖는다.

"집착 끊고 자유 찾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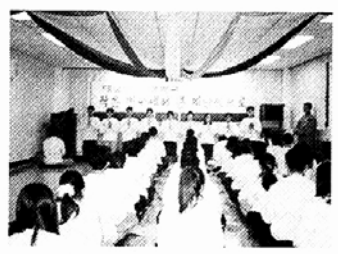
대불련 80명 명상등 다양한 수련체험

평상시 자신의 신체를 씻으며 건강한 육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 본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1월23일부터 5일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향노이하 대불련) 주최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제9차 대불련 수행학교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일상 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들로 가득차 있었다. 친교 프로그램 위주로 일관해 오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명이 모여 함께 울고 웃기' '자신에게 보내는 발원문 작성' '목욕하며 자기 성찰하기' '애장품 집착 끊기' 등 일상생활과 연계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평소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타인에게 보시하는 '애장품…' 순서를 통해 물건과 사물로부터 집착을 끊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충만된 생활인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돼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또 여러명이 함께 모여 각 개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동안에 똑같이 울고 웃기를 반복한 이색적인 공동체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실천이 바로 수행'이라는 백남석 지도법사의 수행론 강의도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주일기자



◇ '작은 변화에서 큰 깨달음으로'를 주제로 열린 대불련 수행학교.

최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근본불교 대강좌(3년과정)



그동안 동산불교대학에서 <근본불교개설 강의>, 동산 전문연구원에서 <아함경>을 강의했던 최봉수 교수님의 특별 경전코너인 <근본불교 강좌>를 개설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소승과 대승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울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3월 9일(목) 오후 4시
4.모집내용	주간반 · 통신반
5.입 학 금	100,000원
6.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홍법사를 수여함

※ 근본불교 (아함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십지품→ 무량수경)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8 / FAX 02)732-1207

동 산 불 교 전 문 연 구 원

주부 ·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산불교대학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3월 8일(수) 오후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감은사지 서탑 기울다

육안으로도 확인…보존조치 절실

석재 금가고 기단부·옥개석도 풍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탑파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국보 제112호 경주 감은사지(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3층석탑중 서(西)탑이 오랜 풍화로 석재에 금이 가고 중심축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밀진단과 보존조치가 시급하다. 또 서탑에 대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98년 정기안전점검에서 탑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것과는 달리 99년 정기점검 보고서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돼 국보관리와 보존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난 98년 감은사탑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서탑의 수직기울기가 남서쪽 방향으로 변위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석재가 마모되고 표면이 들떠있는 박리·박락 현상이 심하고 탑재의 일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이 탑위에 올라가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철책의 설치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기자가 10일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결과 서탑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탑상층부 중앙에 박혀있는 찰주와 탑신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기단부의 석재도 금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99년 재진단결과 구조안정성에는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박락현상에 대해서만 보존조치가 필요하다는 4줄가량의 짤막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와관련 同연구소의 한 담당자는 "석재의 약한부분이 마모되어 내려앉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98년 보고서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어서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인사는 "서탑의 경우 대기오염 및 풍화작용에 의해 기단부와 옥개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등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탑은 지난 59년 해체복원당시 청동제 사리함(보물 366호)이 발견되는 등 관심을 모았으나 이후 40년동안 재보수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8년 정기검점결과 감은사지 서탑에 문제점이 제기되자 경주시는 지난해 보수를 위해 4억여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누락되었다가 지난해 감사에서 보수의 필요성이 다시 지적되자 문화재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문화재보조정비 보조금을 책정하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탑상층부 중앙에 박혀 있는 찰주와 탑신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는 등 감은사지 서탑의 옥개석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뚜렷이 어긋나 있어 정밀진단과 보수가 시급하다.

지리산댐 대책회의

사찰환경위, 실상사서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는 19~20일 실상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지리산댐과 관련한 현장조사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사찰생태문화기행 실시 및 환경지침서 발간, 사찰오폐수처리 지침 마련 등 올해 사업계획도 확정한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8일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보낸 지리산댐관련 질의서에 대해 "올 상반기내에 주민대표가 선정한 조사단과 함께 댐 건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만큼 구체적인 댐건설 계획 자료가 마련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찰환경보존위는 지역주민들이 댐건설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 일단 조사단 참여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아바타코스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신도조직 개편-교육강화

조계사 내실다지기

지난해 복지, 문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홍보에 주력해 온 조계사(주지 지홍)는 최근 신도조직의 대폭적인 개편과 함께 불교대학과 기초교리강좌 등 신도교육분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불자들의 '신심 살찌우기'를 선포(?)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신도조직 강화, 신도회, 관음회, 반야회, 대승회, 지장회 등 5개 신행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벌여온 기존 구조에서 신도회 관할 하에 위 4개 신행단체와 거사회, 행원회, 계층법회 등 3개 신행단체를 추가한 조직으로 바꿈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도회활동을 펼 수 있도록 했다.

불교대학과 기초교리강좌, 경전연구반 등 신도 교육분야는 올해 조계사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 불교대학의 경우 기존 강좌에 실천신행, 수행실수 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이론과 수행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천신행은 신행활동 점검에 중점을 두게 되며, 수행실수는 위빠사나나 선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초교리 강좌는 기존 교육과목 외에 슬라이드 교육과 문화답사 등을 추가하고, 봉사활동과 수련회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비실천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뜨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경전연구반은 초·중·그급 과정에 다양한 경전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불경을 보다 깊고 넓게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도들의 '실력향상'을 꾀하게 된다.

조계사 김상기 총무계장은 "이제 어느정도 안정기반을 마련한 만큼 신도들과 일반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심을 다질 수 있도록 올해 계획을 세워놓았다"며 "조계사를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사찰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전국사암 정월대보름법회

달집태우기·달맞이·민속놀이등 다채

전국 각 사찰에서 정월 대보름(2월19일) 맞이 법회가 봉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찰에서는 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펼쳐 시민들에게 전통민속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해사암불교연합회(회장 원공)는 2000년 역사의 가락문화를 계승하고 김해의 발전과 민족 통일을 기원하는 '신어산 대보름 달맞이 시민축제'를 19일 오후 3시 신어산 주차장에서 거행한다. 문화공연, 대보름 기원제, 달집태우기 등으로 진행되는 이날 시민축제의 수익금은 결식어린이, 청소년가장,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금으로 쓰인다.(0525-322-0088)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와 칠곡분원 연흥사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19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삼재기도와 달집 태우기 행사'를 봉행한다. 법왕사는 입춘삼재기도를 올린 뒤 사찰 주차장에 마련될 행사장에서 스님들의 집전으로 달집 태우기 의식을 갖고 새해의 서원을 세울 예정이다.(053)766-3747

속초 보광사(주지 석문)도 속초시 및 속초교육청 후원으로 19일 정월대보름 달맞이 법회를 연다. 1부는 오전 10시30분 보광사에서 대보름 법회 및 전통민속문화 장승제 재현과 줄다리기, 2부는 오후2시 속초 엑스포장 북문 주차장에서 통일기원 정월 대보름 달맞이 달집태우기 및 용왕제, 연날리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로 진행된다.(0392)632-9800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19일 오후 4시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방생법회를 봉행하며, 봉은사(주지 원혜)도 같은날 부여 고란사에서 방생법회를 갖는다.(02)511-6070 (053)763-9824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밤 달이 떠오를 때 솔가지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재앙을 쫓고 한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민속의식이다.

김재경·이윤호 기자

스리랑카에 직업훈련원 설립

진각종, 올 하반기 개원

국제구호 및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스리랑카와 네팔에 JGO(Jin-Gak Order, The Joy of Genuine Oneness)지부를 설립한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네곰보 지역의 카타나 직업훈련원을 30년간 장기 무상 임대를 받아 오는 3월 증축공사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 개원예정인 직업훈련원은 지역민들에게 제과제빵 기술, 컴퓨터 강좌, 자동차용접, 건물 개보수 등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가르쳐 안정된 직업을 갖게 하고 경제적 활동이 가능토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원각사 인근 아파트 허가 반려요청

조계종, 구미시에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양산)는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원각사 인근(20m거리)에 신축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공사와 관련, 아파트 사용허가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9일 구미시에 발송했다.

사찰환경보존위는 공문에서 "주공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접한 원각사 요사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사찰수행환경이 피해를 보고있다. 그러나 주택공사 대구·경북지부의 주공아파트 건립 강행에 맞서 원각사가 지난해 8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결정이 계속 연기중이고,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재경 기자

수덕사·영각사 납골공원 조성

예산 수덕사와 시흥 영각사가 납골공원 조성과 함께 분양에 나섰다.

수덕사(주지 법장)는 다음달부터 대웅전 뒷편 덕숭산에 8천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 '탑림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3월9일부터 분양에 들어간다.

수덕사 탑림공원은 수목을 해치지 않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영탑을 설치하는 친환경적 납골시설로 수요자가 납골탑을 설치할 위치와 규모를 지정할 수 있다. 0458-337-6565

지난해 3천여기의 납골당 '영묘전'을 완공, 분양을 마친 시흥 영각사(주지 현법)는 내년말까지 4만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군자봉 공원'을 완공키로 하고 지난 8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개인단(1기)이 220만원, 부부단(2~3기) 660만원, 가족단(6~9기)이 1,540만원이다. 0345-498-7700.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종립대 졸업식일정

▲동국대 서울캠퍼스:15일 오전 10시30분(중강당) ▲동국대 경주캠퍼스:17일 오전 11시(문무관) ▲위덕대학교:22일 오후 2시(중강당) ▲중앙승가대:24일 오전 10시(정진관) ▲조계종 해인사 승가대학:18일 오전 9시(관음전) ▲태고종 동방불교대:24일 오후 2시 (설법전) ▲천태종 서울 금강대:25일 오후 3시(관문사) ▲부산 금강대:27일 오전 10시 (삼광사) ▲구인사 강원:3월 8일(구인사 인광당)

대북지원 물품 12일 전달

진각종 진각복지재단은 국제불교연구소와 함께 2차 겨울용품을 12일 북한으로 보냈다. 인천항에서 한성선박에 적재, 남포항으로 운반되어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북한동포들에게 전달된 물품들은 상의 3천6백여벌, 하의 2천여벌, 식용유 3백세트 등이다.

이경숙 기자

"물의 일으킨점 사과"

주간불교 김수정 기자에 대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이병두 사무국장의 폭언사건과 관련해 파라미타 회장 지홍스님이 10일 주간불교신문사를 방문해 공식사과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지홍스님은 사과문을 통해 "본회 사무국장이 담당기자에게 전화통화 중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본회 책임자로서 주간불교 신문사와 담당기자, 불교기자협회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재가종무원 소양교육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14일부터 5일간 중앙종무기관 및 조계사 재가종무원들에 대해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주제로 불교회관 1층 법당에서 종무원 소양교육을 실시한다.

강지연 기자

사기행각 가짜스님 붙잡아

부산 안양 일산 삼천포 등지에서 스님 행세를 하며 사찰과 신도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권오현(42·가법명 월전)씨가 6일 포항 오어사에서 무량종 감찰원과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권씨는 입적한 월정사 조실 탄허스님의 상좌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사제 행세를 하며 사찰 및 신도들의 시주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무량종 감찰원장 만오스님은 "유력종단의 큰스님을 아는 체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가짜 승려가 늘고 있다"며 사찰과 신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공금횡령 진현스님 자수

불국사 공금 13억여원을 가지고 지난 해 7월 도주했던 전 불국사 재무국장 진현스님이 10일 경주지청에 자수했다. 검찰은 진현스님의 횡령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運(운)이 약한자를 운이 강한자로 만들어 주고, 악운을 예방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12품 八相塔呪(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중에서 다음의 2가지 품목은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자신의 운세를 강하게 만들고자 하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每事(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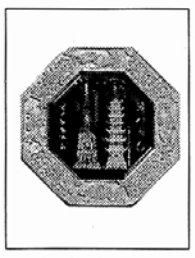
"목걸이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사람의 運氣(운기)와 운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또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도 운기와 운세는 주기적으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한다. 운기가 약할 때 사고나 재난을 만나게 되면 크게 나고, 사기꾼들을 만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며 재물도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내리막 운세일 때 삼재가 들면 나쁜 영향을 더욱 많이 자주 받게 되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의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목걸이용 팔상탑주는 알면에 총괄팔상탑주의 축소판과 뒷면에 팔괘만다라를 새겨 넣어 생기가 계속적으로 방출되도록 하였다. 이를 지니고 다니면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생기가 흡입되어 자신에게 닥치는 재난과, 질병과, 불행이 차단되고, 운기가 계속적으로 뻗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규격 : 5cm×5cm
◇소재 : 순도 99.9%의 순금으로 도금
◇가격 : 70,000원



▲규격 : 8cm×8cm
◇가격 : 60,000원

"대문용 팔상탑주의 효험력"

12품 팔상탑주 중에서 누구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은 대문앞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제일 먼저 부착해 놓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대문은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기(氣)의 출입구이다. 일단은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앙과 불행과 나쁜 사기나 악운을 못들어오게 하고, 상서로운 기(氣)만 흡입되도록 풍수적으로 먼저 조치를 해놓고 다른 처방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특히 앞집 대문과 마주보고 있는 대문은 적살방이라 하여 기가 약한 집이 집안의 생기를 앞집에 모두 빼앗겨 한집은 망하게 되거나 집안에 점점 어려운 일만 생긴다.

대문용 팔상탑주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는 "불자의 집"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가 생활풍수 원리에 맞도록 조성되어 있어 강력하고 좋은 기(氣)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문앞에 부착하면 일단은 대문을 통하여 집안에 생기가 흡입되고 모여들어 이 운기가 앞집이나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작용하며, 그 시점부터 외부의 나쁜 사기를 완전히 분산시키고 제압하여 집안에 상서로운 기(氣)만을 들어오게 함으로서 출입자에게 강한 운을 제공한다. 즉 운세가 약하거나 기우는 집안이 이로 인해 다시 운세가 강해지는 운맞이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또한 대문용 팔상탑주가 있으면 이사할 때 방위를 전혀 볼 필요가 없다. 이사가는 집 대문에 본인의 이사짐이 들어가기 전에 대문용 팔상탑주를 부착하고 나서 들어가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잡신들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저승사자도 대문용 팔상탑주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꿈을 꾼 불자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 중요한 계약이나 시험 보러갈 때 몸에 지니고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삼재든 사람이 몸에 지니면 약해지는 운기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삼재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 초상집 등에 갈 때 필히 몸에 지니고 가는 것이 좋다.-상문을 전혀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외국여행이나 기타 오랫동안 외부를 돌아다닐 때도 필히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했으면 한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재난이 있는 곳은 저절로 피해서 가게 되고 차량 사고시나 비행기 사고시에도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 관재가 있거나 소송전에 얽혀 있는 사람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꼭 지니고 다녔으면 한다.
- 자녀들에게도 가능하다면 한 품씩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해주면 밤에 나가서 재난을 당하지 않게 되고 학업에도 열중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이것은 분실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시킨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감로법 이제 알았네 ㊦

정 호 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

불법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하지만 이제 지난 과거 나 자신의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면서 차츰 삶의 먹구름들을 조금씩 조금씩 걷어내고 내 삶의 길고도 두터운 업장을 조금씩 소멸해 가고자 한다. 누구나 영어(囹圄)의 삶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화제겠지만 내가 겪어야 했던 고뇌들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가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보다 더 어려운 내 이웃들과 동료 도반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럽고 떠올리기조차도 싫은 지난날의 참담한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니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나 부처님의 감로법을 만났다는 보은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나의 지난 과거 삶의 흔적들과 내가 조금씩 변해 가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나는 세상의 큰 죄인이 된 몸으로 현실과 과거 미래세에 지울 수 없는 인생의 표류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궁핍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태어나 겪은 일들이기에 나와 내 가족들만이 유독 어려움 속에 살아왔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내 인생에 대한 무엇인가가 정립되기 전에 너무 일찍 내 인생이 무너진 탓에 잠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고 싶을 뿐이다.

내가 태어난 곳은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조그마한 농촌이다. 4남3녀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내가 어릴 적에 사찰이라고 하는 곳은 십여 리밖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집 부근에 있는 교회당에 다니게 되었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연히 부대 안에 있는 교회당에 다녔다. 어느 날 부대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위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나는 토사에 밀려 20m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내 바로 옆에서 작업하고 있던 선임하사 한 분과 사병 2명 그리고 장비까지 토사에 묻히는 대형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나는 허리를 크게 다쳐 헬기로 군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두 번이나 더 있어 나는 아버님과 상의 끝에 7년 8개월이란 군복무 생활을 그만두고 제대하게 되었다.

제대 후 대림산업에 취업하게 되었고 군 시절 알고 지내던 박경미란 여인과 결혼하여 예쁜 딸까지 얻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에 나가 4년째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 날 본사로부터 가정문제 때문에 빨리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순간 왠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이때부터 나는 차라리 죽어 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경이 되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 하나 잘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다보니 내 앞에 태산이 턱 버티고 있고 뒤에는 절벽이었던 때가 참 많았다. 사람들의 마음이야 모두 광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

귀국 후 아내와 딸 소식을 알기 위해 고향집으로 갔다. 어머니께서는 핫병이 나시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누워 계시면서 나의 두손을 꼭 잡고 "애야, 이 모든 것은 이 에미 탓이다. 날 용서해다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다시 벌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잊어버려라"하시면서 우셨다. 집을 나서는 나의 마음에는 아내가 나를 배반했다는 배신감 때문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나의 마음이 나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먹구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때부터 나는 매일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 의지해 이 괴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다. 한잔 술이 두잔이 되고 한병이 두병이 되면서 나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다. 술을 마시다가도 끓어오르는 분노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집 집기를 때려부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여러번 파출소에 끌려갔다. 그러면 나의 셋째 매형께서 간신히 문제를 처리해주어 나오곤 했다.

이렇게 폐인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강릉에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를 찾았을 때 나는 이성을 잃었다. 칼을 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 오른손 손가락이 끊절되는 지도 몰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상해 14주라는 상처를 입었다. 가끔 당시 내가 불교를 믿고 있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사고를 쳤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모르긴 해도 모든 것을 한번쯤 더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이때부터 나의 도피생활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때로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던 추운 겨울날 순천시 부근에 있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자다가 하도 추워서 이불가게에서 이불을 훔쳐 덮고 자다가 발각되었다. 기소중지 사전과 절도죄로 구속되었다.

구속 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아픈 마음과 고통을 겪으면서 지냈다. 친구도 형제도 모두 나의 곁을 떠났다. 될대로 되라 하는 절망 속에서 나를 손짓하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악마의 손짓이었다. 끝내는 죽기를 결심하였고 이로인해 나의 눈에서는 항상 살기가 돌았다. 나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여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움을 거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 관구실로 독방으로 끌려 다니며 말 그대로 막가는 인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삶과 죽음의 갈등 속에서 헤매이던 나에게 동료 한명이 현대불교신문을 한번 보라면서 주었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고 보게 되었는데 '길을 묻는 이에게'라는 란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모든 일은 나로 인한 업의 결과요, 내 행위로 인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불교에 관심을 갖고 불교법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법회때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여기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굴 원망한다거나 질투한 또 다른 원망과 질투를 만들어 낸다는 인과의 도리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계속〉

"누구를 원망하거나 질투하면 또다른 원망과 질투를 낳지요" 나는 이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림 · 이준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3,800,000
B: ₩4,300,000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예금주 : 봉송황토마을)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어린증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관기부족, 성인병, 백반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늙어 젊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여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점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利益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폐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 A X : (02)705-5229